

高麗 伽藍의 研究

張 慶 浩

一、研究의 目的

불교미술이 統一新羅시대에 가장 古拙한 전성기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그 전통은 高麗에 이어오면서 太祖의 訓要十條 등 불교의 崇仰은 한층 더하였다. 또 高麗에서 시행한 道敎的 요소와 風水圖讖思想, 샤아먼(saman)의 토속적인 신앙 등이 불교와 서로 융화하여 王家와 貴族佛敎를 이루면서 민간신앙으로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다.

한편 大覺國師에 의한 禪敎를 겸한 天台宗의 일어난은 불교계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高麗불교의 요소들은 寺院伽藍을 이루는데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믿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지금까지 三國時代伽藍만을 다루던 것에서 탈피하여 잘 알려지지 않았던 高麗시대의 伽藍을 연구하여 그 특징과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中世建築 경향을 밝히고자 한다.

二、高麗시대 佛敎文化 概括

高麗의 太祖 王建은 後三國시대 분열기에 국내세력을 통합하여 건국을 함에 이룩한 大業을 이룩한 것이 오직 佛法의 가호에 의한 것으로 믿어 그의 만년 후손들에게 유언한 소위(訓要十條)의 제1조가 불교정책과 연관된 것이었다. 즉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 국가의 大業은

받드시 여러 부처의 가호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禪敎寺院을 짓고 住持를 보내어 분향 수입하여 도를 닦아 業을 다스리게 하여 후세에 간신배가 정권을 잡아 僧의 請謁을 따른다면 家業의 寺社가 서로 다투어 빼앗고 빼앗기고 할 것이니 이는 의당 금해야 할 것이다」^①라고 하였고 제2조에는 「모든 寺院은 모두 道說禪師가 그 山水의 順逆을 推占하여 開創한 것인데 道說이 이르기를 『내가 占定한 바 이외에 합부로 더 寺院을 創造한다면 地德을 짊어 박하게 하여 王業이 길지 못할 것이다』라 했으니 짐은 엄려하건대 후세의 國王·公侯·朝臣 등이 자기 願堂이라 칭하여 或 더 創造할까 매우 걱정된다. 新羅末에 다투어 절과 塔 등을 짓다가 地德을 쇠하게 하여 망함에 이르렀으니 어찌 이를 경계하지 않겠는가」^②라고 하여 불교에 대한 지극한 정책과 風水地理說의 존중을 단적으로 표현하여 준다. 또 太祖는 崔凝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新羅는 九層塔(皇龍寺)을 세워 드디어 통일(의) 業을 달성하였다. 지금 나도 開京에 七層塔, 西京에 九層塔을 建造하여 신통력을 빌어 兇群을 제거하고 三韓(三國)을 합하여 一家를 삼고자 하니 그대는 나를 위하여 發願疏를 지으라」^③하여 상징적 役事를 일으킴으로써 佛力을 빌려 國家統一을 이루려 하였다. 따라서 開京 안에 法王·王輪 등 一〇寺와 廣明·興國·普濟·智妙·龜山·開國 등의 名刹은 모두 太祖의 所創으로 開京을 佛敎都市化 하였던 것이다.^④

이리하여 七대의 왕과 신하들은 太祖의 뜻을 받들어 佛敎를 깊이 신봉하게 되었고 王家나 귀족에게 세 아들이 있으면 그중 한 사람은 出家하는 것을 허락하여 실제로 많은 王族들이 僧이 되었다. 이렇게 佛敎界에 많은 지식층이 참여함으로써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고 王權과도 결부하게 되자 정치적인 영향이 지나쳐 오히려 폐단을 자초하게 되었다. 高麗 七대까지의 出家王子는 太祖의 다섯째 아들 增通國師를 비롯하여 文宗의 넷째 아들인 大覺國師 煦와 여섯째인 道生 僧統 鏡, 그리고 열번째 아들인 聰惠 首口環, 肅宗의 셋째 아들 圓明國師 澄, 仁宗의 다섯째 아들인 元敬國師 冲曦, 明宗의 서자 思善, 洪機, 洪樞 등 일

곱 아들과 熙宗의 넷째 아들 大禪師 鏡智와 다섯째 아들 冲과 明覺國師 膺, 또 忠烈王의 셋째 아들 淸, 忠惠王의 셋째 아들인 釋器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나 ⑤ 이 중에서도 大覺國師는 高麗 天台宗의 始祖로서 유명하다.

한편 귀족층에서도 출가자가 많아 李子淵·李子謙의 자손으로 玄化寺의 世良, 興王寺의 智炤 등이 있고 李資玄은 벼슬을 버리고 淸平山에 들어가 그의 부친 李顥가 창건한 普賢院을 文殊院이라 개칭하고 이곳에서 불교담자로 여생을 보냈다. ⑥ 또 金山寺의 慧德王師 詔顯은 바로 李子淵의 다섯째 아들이었다. ⑦ 海州 崔씨 崔冲의 문중에서도 弘護寺의 俊流를 비롯하여 正思, 文悅, 道樞 등이 있었다. 또 尹瓘은 九城의 하나인 英州城에 護國 仁王寺와 鎮東 普濟寺를 창건하였고 그의 아들 彦岳은 출가하여 興王寺殿이라 하였으며 次子 彦頤는 아들을 출가시켰다. 平山 朴氏 朴寅亮도 그의 次子가 출가하여 洪圓寺 聰諤(廣濟僧統)라 하였다. ⑧ 이와 같이 지위 높은 이들의 불교계 출가는 高麗불교가 먼저 호국불교로서 奉事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차츰 민중불교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光宗 때에는 僧科制가 마련되어 합격하면 法階를 주었는데 처음에는 大選, 다음에 大德·大師·重大師·三重大師로 승진하며 그 후에는 중파에 따라 敎宗 계통에는 首座, 僧通과 禪宗 계통에는 禪師와 大禪師를 주었다. 한편 국가와 왕실의 顧問인 國師와 王師의 제도가 있어 최고의 法界인 僧通 및 大禪師 중에서 추대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⑨

이 중 大覺國師 義天은 우리나라의 天台宗을 일으켜 기존의 五敎九山에서 五敎兩宗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五敎兩宗이라 함은 新羅 때부터 내려오는 五敎⑩와 九山⑪을 총칭하는 曹溪宗, 新佛敎인 天台宗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에 禪宗을 표방하는 사람들은 敎學을 겸하지 않고 敎派와 세력다툼을 하여 왔는데 義天이 天台宗으로 敎禪合一敎觀雙修의 사상을 불러 일으켜 화합의 사상과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義天은 宋에 건너가 一四개월을 머물며 각지의 고승을 찾아다니면서 天台·律·淨土

禪 등 여러 종파의 이론을 익히고 돌아와서 興王寺의 주지가 되었다. 그는 이곳에 敎藏都監을 두고 續藏經을 開板하였는데 이에 앞서 그가 宋에서 가져온 經書에다 다시 국내와 遼·日本·宋 등지에서 경서를 구입하여 총 四,七〇〇여 권에 달하는 총목록을 만들고 이를 〈新編諸宗敎藏總錄〉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經·律·論의 章疏 등 도합 一,〇一〇부 四,七四〇권이 이 목록에 의하여 차례로 開板되었다. 수록되었던 서적은 八〇%가 없어져 오늘날 전해오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만으로도 학계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⑫

이러한 類의 佛書 개판으로는 顯宗 때에 시작하여 文宗 때 완성하였으나 蒙古군의 침략(高宗 時)으로 인해 대구 符仁寺에서 불타버린 舊大藏經板이 있고, 후일에 高宗이 강화도에 藏經都監을 설치하여 一五년만에 완성을 본 소위 八萬大藏經板이 지금 海印寺에 보관되어 있다. 한편 각종 불교행사도 국가적으로 거행되어 燃燈會와 仲冬의 八關會도 성행, 국가의 재난을 막기 위한 消災道場과 金剛經道場, 病亂을 막기 위한 藥師經讀誦의 藥師道場과 祈雨를 위한 龍王道場 등이 있었다. 한편 經行이라 하여 民利民福을 빌기 위하여 仁王經을 독송하는 행사도 있었고 가축을 놓아주고 어망을 불지르는 放生會도 베풀며, 僧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飯僧이 있었으며 소원성취, 國泰안녕을 위해 금·은으로 寫經을 제작하기도 하여 호국 및 귀족불교로 발전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토속신앙과 결부되어 서민불교로도 널리 퍼져나갔다.

宋史 高麗傳에 의하면 「王城有佛寺七十區」라고 하여 開京일대는 가히 불교도시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왕실·왕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된 高麗불교는 사원의 納田·納奴·免稅·免役 등의 온갖 혜택과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경제를 좌우하는 부유한 기관으로서 행세를 하게 되어 實(재난) 또는 長生庫라는 금융조직을 형성, 재산 축적과 민간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재산의 도피수단이 되고 부패를 불러일으켜 그 폐해가 심하였다. 이 때 寺田 등 사찰의 재산을 표시하기 위하여 長生標를 세웠던 것으로 보이며 그 예로서 石碑·長生標

에 해당되는 것이 현재 慶南梁山郡 下北面 田圃 속에 서있다. ⑭ 이러한 長生標는 長生庫에 소속된 寺田의 표시라고도 하지만 長生은 본래 長柱이라고도 쓰여 蘇塗·立石 등의 민간신앙에 그 기원을 가진 것으로 사원 입구에 흔히 건립하여 伽藍守護神, 寺院守護神으로 하는 동시에 사원과 마을의 경계로 삼던 것이 점차 界標思想과 山川裨補, 風水地理思想의 영향에 따라서 田土標識와 山川守護의 意義를 가지게 된 것이다. ⑮ 또 본래 사아머니즘의 의식으로 거행되었던 전몰장병을 위한 국가적 慰靈祭를 불교의식으로 승화시켜 八關會라 한 것은 新羅의 眞興王代부터였는데 高麗에 와서 더욱 불교의 彌勒信仰과 天神·龍神·山神 등에 대한 토속신앙의 의의를 더 깊이 했다. ⑯

三、文獻記錄 및 조사된 寺院 이름表

高麗 불교의 성황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폐해도 많았으나 위와 같은 寺院의 蓄財로 道를 행할 승려들이 재산에 욕심을 갖게 되어 財利를 다루는 자가 많아졌고 寺塔 건조나 갖은 불교행사로 국가재정의 낭비가 심하게 되고 여러 혜택을 얻기 위하여 승려가 되는 자도 많아져 국가의

고麗시대의 사찰로서는 많은 이름이 기록으로 나오는 물론 현존하는 遺構도 전국적으로 적지않게 散布되어 있다. 이들을 일일히 파악하여 열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간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다.

〈表 一〉文獻에 記錄된 高麗寺院 이름 ※ 高麗古都徵卷之七에서 주로 발췌됨.

寺名	位 置	創 建 年 代	重 要 內 容	參 考 文 獻
① 法王寺	在延慶宮東 在宮城宣仁門外	太祖二年(九一九)	강조의 난 때 목종이 폐위되어 이 사찰에 들어감.	輿地勝覽 高麗史
② 王輪寺	在松岳麓	"	충렬왕 三年에 丈六塑像을 만들었고, 廉承益과 孔楡에게 명하여 석탑을 수리함.	輿地勝覽 高麗史
③ 日月寺	在松岳麓 日月寺于宮城西	太祖五年(九二二)	숙종 六年에 금으로 妙法蓮華經을 만들음.	輿地勝覽 高麗史
④ 大興寺	在天磨聖居兩山之間	太祖四年(九二二)	태조가 僧利言에게 말하여 지어진 이 寺刹은 圓通, 詩穴, 禪岩, 寂照 등의 암자가 있음.	輿地勝覽 高麗史
⑤ 安和寺	在松岳紫霞洞	太祖十三年(九三〇)	예종 十三年에 重修, 本殿은 能仁이고 예종이 十六羅漢塑像을 賜하였	輿地勝覽

생산력·노동력이 매우 감퇴되었다. ⑯ 또 妙淸이나 辛旽 같은 자는 정 치에 야심을 갖고 사회를 어지럽혀 禪僧의 체면을 실추시켰고 佛敎자 체로도 말기에 와서는 祈福佛敎로 저속한 미신과 결부되어 무속·음양·도참기타 雜術을 나타내는 면도 있었다. 이러하여 麗末 불교계의 추락은 마침내 識者인 유학자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排佛운동이 일어나면서 儒·佛이 서로 갈등, 반목하게 된 것이며, 후에 朝鮮王朝가 들어서면서 불교는 國政으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寺名	位 置	創 建 年 代	重 要 內 容	參 考 文 獻
⑥ 開國寺	在府東五里	太祖十九年(九三六)	현종 九년에 개국사탑을 수리하고 사리를 안치함. 문종 三七년에 태자에게 명하여 宋의 대장경을 들여와 道場을 지어 보관케 함.	輿地勝覽·高麗史 益齊亂藁·東文選
⑦ 賢聖寺	在炭峴門內	光宗二年(九五二)	명종이 原寺刹名인 現聖寺를 賢聖寺로 고쳤음.	輿地勝覽·高麗史
⑧ 奉恩寺	奉恩寺于城南	光宗二年(九五二)	문종 二七년에 佛像을 만들고, 예종 九년에는 왕이 이 절에서 曇眞을 국사로, 樂眞을 王師로 삼았음.	高麗史
⑨ 歸法寺	在炭峴門外	光宗十四年(九六三)	목종 十二년에 강조의난 때에 왕이 이 절에서 御衣를 갈아입고 충주로 피신한 절임.	輿地勝覽 高麗史
⑩ 眞觀寺	在龍首山麓	穆宗二年(九九九)	목종이 이 절을 지어 太后의 願利로 삼고 목종 十년에 九층탑을 세웠음.	輿地勝覽·高麗史
⑪ 崇敎寺	在南部歡喜坊	穆宗三年(一〇〇〇)	고종 四년에 (安、顯、康) 三宗의 神御를 현화사에서 이 사찰로 奉하였 으며, 成宗의 願利로 삼았다.	輿地勝覽 高麗史
⑫ 國淸寺	在西郊亭之西	宣宗六年(一〇八九)	숙종 六년에 一九〇〇명을 들여 이 사찰을 수리함.	高麗史·高麗圖經
⑬ 弘護寺	創弘護寺于城東	宣宗十年(一〇九三)	숙종 六년에 왕이 친히 이 절에 행하여 신하 和進에게 명하여 詩를 짓게 하였다.	高麗史
⑭ 天壽寺	在城東	睿宗六年(一一一一)	예종 六년 이 절의 대지가 좋지 않아 京南의 藥師院자리로 옮김.	輿地勝覽·高麗史
⑮ 甘露寺	五鳳峰在開城府峯下有寺名甘露		이자연(李子淵)이 元나라에 들어가 潤州감로사를 보고 돌아와 대지 경관이 비슷한 곳을 골라 元의 이 사찰을 모방하여 지었다고 하는데 경관은 오히려 元의 것보다 좋았다고 함.	陳仁錫無夢園集 高麗史 案無夢
⑯ 旻天寺			忠烈王 三년에 왕이 궁(宮)을 회사하여 만든 사찰이다. 불상은 忠宣王	輿地勝覽

寺名	位 置	創 建 年 代	重 要 內 容	參 考 文 獻
①7 妙蓮寺	在三峴里		忠烈王 二六년 元의 與伯顏篤不花와 함께 이 절에서 藏經을 읽었다 함. 충렬왕 二八년에 이 사찰에 안평공주의 影堂을 지었음.	輿地勝覽·高麗史 益齋亂藁
①8 演福寺 (普濟寺)	在都城中 在王府之南泰安門直北百餘步		이 절의 옛 명칭은 普濟寺였다. 절의 大殿은 能仁殿이며, 그 앞의 문은 神通門이었다. 그리고 이 사찰에는 五층 樓閣이 있었는데, 성안의 富商들이 재물을 내서 누각을 고쳐서 수십리 밖에서도 이 누각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함. 宣宗 七年 水陸堂이 불에 탔다.	輿地勝覽 高麗圖經
①9 廣明寺	在延慶宮北松岳麓		太祖집을 회사하여 절로 삼았다.	輿地勝覽
②0 龜山寺	在松岳昭格殿東		太祖 一二년에 天竺國의 三藏法師摩睺羅가 이 사찰에 들어와 죽었다 함.	高麗史·高麗圖經
②1 興國寺	在廣化門之東 南道傍		이 사찰은 兵部橋의 西南에 위치하고 있으며 北에는 楹樓가 있었으며 三개의 부도가 있었다. 이 절의 앞에는 공은 시내가 흘렀으며 堂殿은 웅장하고 정원에는 銅幡竿이 있었는데 높이는 약 一〇丈이고 직경은 二尺이었다고 한다.	輿地勝覽 高麗史
②2 福靈寺	在松岳西麓		송악산 기슭에 위치한 사찰로서 위에는 曉星窟이 있었음.	輿地勝覽·高麗史
②3 佛恩寺	在太平館北洞		충렬왕 二四년에 왕이 행차한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찰은 琵琶山에 있다.	輿地勝覽 高麗史
②4 龍興寺	在歸法寺側		熙宗 五年에 王이 神考의 忌辰道場인 이곳에 행차	輿地勝覽·高麗史
②5 十王寺	宮城西北隅立十王寺		千秋太后皇甫氏의 외척인 金致陽이 궁성의 모퉁이에 이 사찰을 지었음.	高麗史
②6 觀靜寺	在帝釋山		의종 一一年에 王이 친히 이 사찰의 風水를 살폈다고 함.	輿地勝覽·高麗史
②7 甌山寺				高麗史
②8 海安寺	在鳳鳴山		의종의 眞影을 봉안했다가 선효사로 이전함.	輿地勝覽·高麗史
②9 乾聖寺	在松岳		고종 三년에 처음 우한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에 지어진 사찰로 推定됨.	輿地勝覽·高麗史
③0 神孝寺	在廣德山		일명 墨寺라고도 했던 이 사찰에는 德寧公主와 忠惠王의 眞影이 같이 있음.	輿地勝覽 高麗史

寺名	位 置	創 建 年 代	重 要 內 容	參 考 文 獻
③1 肅陵寺			한때 元의僧들이 있었다함.	高麗史
③2 妙覺寺			충숙왕 八년에 白元恒, 朴孝修등이 이 절에서 上王의 還國을 빌었다함.	高麗史
③3 靑雲寺	在補國寺側		懿妃의 眞影을 奉했으나 나중에 妙蓮寺에 옮김.	輿地勝覽・高麗史
③4 補國寺	在麗正宮東西		공민왕 二〇년에 후한 기록으로 보아 그 이전寺刹임.	輿地勝覽・高麗史
③5 慈雲寺	在開城部北部			高麗史
③6 慈恩寺	在勞軍橋側		王이 影殿의 上樑式을 보려고 행차한 기록으로 보아 創建年代도 이해 인 공민왕 二〇년으로 추측됨.	高麗史
③7 西普通寺	在永平門外		개경서원의 한驛名과도 이름이 같은 이 寺刹은 辛禱 三年에 탑을 수리 한 기록이 있다.	輿地勝覽・高麗史
③8 雲巖寺	在舞仙峰下		舞仙峰 아래에 위치한 이 사찰은 舊名은 光岩이고 공민왕 玄陵齊宮이다.	輿地勝覽・高麗史
③9 内外帝釋院		太祖七年(九二四)	僧洪慶이 唐으로부터 들여온 六藏經의 一部를 이 寺刹에 보관함.	高麗史
④0 九曜堂	在松岳麓		九曜堂은 고려시대의 醜星處이다.	輿地勝覽・高麗史
④1 神衆院			宣宗三年에 이 寺刹에서 팔관회를設함.	高麗史
④2 廣興寺		太祖十九年(九三六)	이 寺刹의 위치는 聖彌勒內에 創建하였다함.	高麗史・東史綱目
④3 彌勒寺		元宗三年(一二六二)	원종 三年 十月에 이 사찰을 重營함.	高麗史
④4 新興寺		太祖二十三年(九四〇)	이 사찰에는 功臣堂을 짓고, 이 건물의 동서벽에 三韓의 공신들을 그려 두고 해마다 法會를 열었다함. 현종 四年에 功臣堂을 보수하였으나, 元 宗은 功臣堂을 새로지어 다시 이 功臣들을 벽에 그림.	高麗史
④5 崇善寺		光宗五年(九五四)	이 寺刹에서 광종이 先妣를 追福하였음.	高麗史
④6 弘化寺		光宗十九年(九六八)	遊岩寺, 三歸寺와 같이 創建	高麗史
④7 重光寺		顯宗三年(一〇一二)	이 寺刹의 正式名은 慧日重光寺임.	高麗史
④8 大雲寺			이 寺刹은 宣宗때부터 짓기 시작함	高麗史

寺名	位 置	創 建 年 代	重 要 內 容	參 考 文 獻
④9 大安寺	在天磨山		문종 五年에 重興、大安、大雲寺 등을 보수, 창건하다가 흉년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해에 大安寺를落成함. 大興山城의 小西門밖에 泰安倉이 있는곳이 이 사찰의 옛터이다.	高麗史
⑤0 弘圓寺			宣宗 七年에 큰 벼락으로 新興倉이 타서 弘圓、國淸寺의 공사를 중단함. 숙종 六年에 大藏堂과 九祖堂을落成함.	高麗史
⑤1 奉嚴寺	在鳳鳴山下	仁宗五年(一一二七)	인종 五年 十一月에 왕이 寺刹의 낙성식에 참석하기 위해幸함.	輿地勝覽·高麗史
⑤2 濟危院		顯宗九年(一一一八)		高麗史
⑤3 妙通寺			德宗元年에 幸한 기록으로 보아 創建은 이보다 前時代로 推定.	高麗史
⑤4 東西大悲院			이 院의 본래 역할은 賑恤임. 忠惠王後四年에 習射場을 이 기관에 부속시킴 大悲는 원래 龍首山南에 있는 인덕인데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推定됨.	高麗史
⑤5 佛福藏			공민왕 十五年에 왕이 이전에 幸하여 僧千禧를 만남.	高麗史
⑤6 福源觀	在王府以北大和門內		文中에 三清像이 나온 것으로 보아 道教寺院으로 推定됨.	高麗圖經
⑤7 佛日寺	千東郊	光宗二年(九五二)	太祖願堂으로 城南에 大奉恩寺를 창건하고 또 先妣劉氏의 願堂으로 東郊에 佛日寺를 창건함.	高麗史
⑤8 彰信寺			예종 十六년에 왕이 幸한 기록으로 보아 創建은 이 이전으로 推定됨.	高麗史
⑤9 法華寺			충렬왕 十년에 왕이 공주와 함께 幸한 기록으로 보아 이 寺刹역시 이전에 創建된 것으로 推定됨.	高麗史
⑥0 高圓寺			이 사찰의 정식명칭은 木村高圓寺이며 충숙왕 十五年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推定됨.	高麗史
⑥1 奉先寺			공민왕 十八년 이전에 創建된 것으로 推定됨.	高麗史
⑥2 內天王寺			성종 十六년 이전에 創建된 것으로 推定됨.	高麗史

〈表二〉一九七七年 發刊 文化財管理局、文化遺蹟總覽中에 蒐錄된 高麗時代 寺址 및 寺刹現況

寺 및 寺址名	位 置	主 要 內 容	參 考 文 獻
① 鶴林寺址	仁川市 南區 鶴翼洞 三三一의 一 (鶴翼國民學校 뒷산)	고려시대 寺址인데 本寺刹이 世人에게 알려진 것은 태평양 전쟁末에 당시 仁川高等學校 校長인 日人 野野村이 약간의 고려磁器片과 礎石 瓦片을 발견한 후에 一九五〇년 五月에 仁川市立博物館에서 梵宇文様の 瓦片과 우수한 器片 특히 「延祐年三月重修」라는 銘을 가진 瓦片이 발견되어 이곳 佛寺가 고려 忠肅王 四年(一一三二) 以前에 創建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寺址는 현재 南側에 鶴翼國民學校의 新築校舍가 자리잡고 있다.	仁川市史
② 驪州走鹿里 寺址	驪州郡 金沙面 走鹿里 山九六의 一九	附近에 기와편과 磁器의 破片이 흩어져 있고 또 柱礎石 및 石塔의 破片이라 생각되는 加工 石이 여러개 現存하고 있는데 고려 恭愍王때의 寺址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古蹟資料
③ 萬奇寺址	平澤郡 振威面 東泉里 五四八	龍珠寺의 末寺로 고려 太祖 二五(九四二)에 南大師가 創建하였다고 전하나 撤廢되었고 現在는 新築한 大雄殿(正面 四間, 側面 二間, 八作지붕, 丹青)과 山神閣, 寮舍 등의 建物이 있는데 이곳에 鐵造如來坐像이 보관되어 있다. 境內에는 石塔材, 石燈材, 石佛等 고려시대 것으로 보이는 石材가 散在하여 있으나 缺材된 部材가 많아서 復元이 不可能하다.	平澤郡誌
④ 淸溪寺	始興郡 儀旺面 淸溪里 山一一	고려 中葉 忠宣王 때 義天國師가 創建하였으며 燕山君이 후에 都城의 사찰을 없애고, 그곳에 觀音을 만들자 佛敎界에서는 이곳에 禪宗의 本山으로 하였다고 전하며 數次에 걸쳐 重修하였다고 하는데 寺內에는 極樂寶殿, 三聖閣, 佛香각, 묘사 등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것으로 보이는 塔과 石燈, 우개석부재가 있고 事蹟碑二基가 있다.	始興郡誌
⑤ 金剛寺址	坡州郡 坡平面 金坡里 二四의 一	一名 彌陀寺址라고도 하는데 高麗初에 尹金剛(坡平尹氏)이 建立하였다는 전설만 있으며 瓦片이 散在한다.	
⑥ 太古寺址	高陽郡 神道邑 北漢里	고려 恭愍王 때 太古國師가 重興寺에 있으면서 동쪽에 암자를 짓고 太古庵이라 했는데 六·二五동란 때 불 타버리고 지금은 碑만 남아 있다.	
⑦ 瑞峰寺址	龍仁郡 水枝面 新鳳山 二一	고려의 名僧 玄悟國師 塔碑(寶物八號)와 一六五㎡(五〇坪) 정도의 石築이 남아 있는데 新鳳里의 瑞峰部落의 地名도 瑞峰寺에서 由來된 것이라 한다.	
⑧ 高麗假闕址	江華郡 錦月里 一一三	고려 元宗 五年(一一六四) 白勝賢이 進言하여 假闕을 지으면 三韓大國이 朝貢할 것이라고 하여 築造하였다 한다. 이 터에서 佛像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神佛에 기도하던 것으로 추측된다.	江華史
⑨ 龍堂寺址	江華郡 仙源面 烟里	고려 때의 寺刹이라 傳하는데 柱礎와 瓦片이 남아있고 이곳은 江華八景의 하나인 龍堂齊月로 漁夫들이 고기잡을 주며 豐漁를 祈願하던 곳이기도 하다.	江華史

寺 및 寺址名	位 置	主 要 內 容	參 考 文 獻
⑩ 興旺寺址	江華郡 華道面 興旺里 五三	고려 高宗이 興旺離宮 南京 四〇〇m 地點에 佛力護國의 一念으로 造成하였으며 高宗 四六年(一一五九)에 落成되었다. 그 築造의 規模로 보아 큰 寺刹인데 지금도 주춧돌이 있다.	江華史
⑪ 清平寺(清平息庵遺址 眞樂公浮屠 公主塔 幻叔堂浮屠) (地有 五一)	春城郡 北山面 清平里 山 一八九의 二	清平寺는 고려 光宗 二四年(九七三)에 白岩禪院으로 創建되었으며 文宗 二二年(一〇六八) 李顥가 重建하여 普賢庵이라 하였는데 宣宗 六年(一一一九)에 李資玄이 重修하고 寺名을 清平寺로 고쳤다. 寺內에는 極樂殿(正面 三칸, 側面 三칸), 廻轉門(正面 三칸, 側面 一칸) 등이 있었는데 極樂殿은 六·二五매 소실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남아있는 많은 佛殿·廻廊·門等의 礎石이 大利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眞樂公浮屠, 公主塔, 幻叔堂浮屠가 있다.	春川邑誌
居頓寺址 (史蹟 一六八)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 一八九	작은 溪谷을 건너 길이 約 五〇m, 높이 約 三m의 築臺를 쌓아올린 臺地로서 지금은 대부분 이 경작지인데 築臺위 中央部에 中門址가 있고 中門앞에 築臺가 있고 中門 左右에 廻廊址가 東西로 나아가다시 北折한 모습이 露出된 石材로 짐작되고 中門址 北쪽에 三層石塔이 남아 있고 塔 北쪽에 金堂址가 있으며 金堂 基壇上面 中央에 佛臺座로 보이는 圓形臺石이 있고 原位置인 것으로 보이는 礎石들이 남아 있어 羅末麗初의 寺址로서는 遺存狀態가 良好한 편이다. 金堂址 뒤쪽에는 民家가 들어서 있다. 이 寺址는 이 時代의 寺刹로서는 보기 드문 一塔式伽藍으로 보아서 注目되고 있다.	(별도해설함)
⑫ 龍頭寺址(鐵幢竿) (國寶 四一)	清州市 南門路 二街 四 八의 九	고려 光宗 一三年(九六二)에 建立된 것으로 支柱는 花崗岩製로 外部 中央에 單調롭게 縱行 隆起線을 두어 表面에 變化를 주고 있다. 그 사이에 同形의 鐵筒 二〇個를 積立하였는데 밑에서부터 셋째 鐵筒 주위에 鐵幢記가 陽鑄되어 있다. 이 당간의 전립연대는 幢記에 「維峻豐 三년 太歲壬戌 三월 二九日 鑄成」이라고 記銘되어 있어 확실한 연대가 나오고 있어 더욱 귀중한 자료이다. 支柱 高 四·二m, 鐵竿 高 一·二·七m, 鐵筒 高 六三cm, 筒徑 約 四〇cm이다.	忠北文化財誌
⑬ 鎮川 芝岩里寺址	鎮川郡 鎮川邑 花岩里	고려시대에 地藏菩薩을 모셨던 寺刹이 있었다고 하여 지금까지 지장팔터라고 傳해지는데 寺刹이 있었던 遺址와 瓦片이 흩어져 있다고 한다.	
⑭ 彌勒寺址	槐山郡 曾坪邑 漣灘里 七八의 二	고려말엽 석가모니의 形을 만들어 현지로 모셔왔다 하는데 김학호라는 스님이 寺刹을 짓고 관리하였으나 가산의 탕진으로 淸州 용화사로 이주하였다고 전한다. 現在 彌勒은 농산리 부락에서 관리하며 매년 一 번씩 祭祀를 지내고 있다. 垆地 約 七〇〇m ² (二二〇坪)에 木造瓦家로 法堂이 約 二六m ² (八坪), 침상각은 約 一〇m ² (二坪)이다.	
⑮ 覺淵寺址	槐山郡 長延面 台城里 三九	고려時代의 創建으로 傳하는 覺淵寺에는 通一大師碑가 있다. 碑文에 依하면 通一大師가 覺淵寺를 創建했음을 알 수 있으며 本寺刹은 고려시대부터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지금 建物은 그 후 數次의 重修를 거쳐서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寺 및 寺址名	位 置	主 要 內 容	參 考 文 獻
⑯ 槐山江坪里寺址	槐山郡 靑川面 江坪里	고려시대부터 전해오는 寺址로서 이 寺址에는 높이 約 三·六五m의 單層基壇위에 初層塔身 正面에는 仰蓮花座上의 結跏趺坐하고 三面寶冠을 戴한 菩薩像이 浮刻되었으며 露盤, 仰花, 寶輪 一一個等 相輪의 精密한 部材가 殘存하는 고려時代의 石塔이 있었다고 傳하고 있다. 現在 이 石塔은 賣却되어 서울로 移搬되었다 하며 原位置 一帶는 耕作地로 變해 있다.	古蹟資料
⑰ 陰城中洞里寺址	陰城郡 蘇伊面 中洞里	中洞里 部落 約 一〇〇m 앞에 위치하며 一名 갈마寺址라고 傳하며 고려말 創建 되었다고 전해오는데 一九一七년까지 四層塔이 있었으나 현재 塔의 屋蓋石과 蓮花座臺가 각 一點씩 남아 있다. 부근에 현대식 우물이 一井 있고, 一九六七년 향아리가 발견되었다고 하며 지금은 밭으로 방치되어진 상태이다. 石塔屋蓋石은 가로 一·五m, 세로 一·三m이다.	古蹟資料
⑱ 彌勒寺址	中原郡 上荊面 彌勒里 五六	彌勒寺址로 推定되는 곳에 고려시대 만들어진 石塔과 石佛立像이 現存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的 寺刹이었던 것 같다. 寺刹은 남아 있지 않고 石佛을 보호하기 爲하여 石窟이 經營되었던 흔적과 그 遺址가 남아 있다.	별도해설
⑲ 寶蓮寺址	中原郡 老隱面 蓮河二洞	고려때 절이 있었다고 하며 붉은 절터라는 전설이 있을 뿐이다. 睿代가 一五m 정도 석축으로 남아 있으며 절터는 약 一三二m(四〇평)이다.	古蹟資料
⑳ 普門寺址	大德郡 山內面 無愁里 一七四	고려말의 寺刹이라 하나 火災로 없어진 흔적이 있으며 權以鎭의 文集 有懷堂集에 보면 現寶文山은 鳳舞山으로 부르다가 普文 또는 普門으로 불렀다 한 점으로 보아 佛敎에서의 普文이나 普賢, 文殊菩薩 漢字씩 따서 普文으로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 절의 이름도 그 것으로 연유하는 것 같다. 현재 이 寺址에는 銘刻되어 있으나 마멸되어 잘 알아 볼 수 없는 石柱와 커다란 石槽, 밧들 등의 石造物이 방치되어 있다.	扶餘郡誌
㉑ 普光寺址	扶餘郡 林川面 加神里	고려때 원명국사가 있던 절로 「高麗林川大普光禪寺碑」라는 碑石 一基가 殘存했는데 현재 그 普光寺 重脩碑는 國立中央博物館 扶餘分館에 移置되어 있다.	扶餘郡誌
㉒ 萬德寺址 (地有三)	釜山市 北區 萬德洞 四二八	金堂址가 上·下 단으로 약 六八m×五四m의 長方形을 이루고 있고 여기서 西南方 一九〇m 지점에 幢竿支柱가 있으며 金堂址 뒷편에 七星堂址로 보이는 것이 있고 東北方 二一〇m, 西北方 一七〇m 지점에 各各 堂址로 보이는 주춧돌이 있다. 西北方 寺址 주위에는 연자밭, 塔石, 屋蓋石, 基壇石 등이 散在해 있는데 『동국여지승람』등 조선 왕조때 편찬된 각종 地誌에 萬德寺의 기록이 없는 것은 麗末倭寇의 兵火로 소실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釜山의 文化財
㉓ 消災寺	達城郡 瑜伽面 龍洞 四	고려 恭愍王 七年(一三五八)에 眞寶法師가 創建한 寺刹로 조선 世祖 三年(一四五七)에 活輪禪師가 重創하고 中宗 五年(一五一〇)에 善珠外岩이 重修하고 哲宗 八年(一八五七)에 法盧	내고장 전통가 꾸기

寺 및 寺址名	位 置	主 要 內 容	參 考 文 獻
②4 大谷寺	義城郡 多仁面 鳳井洞 八九四	고려 恭愍王 一七년(一三六八)에 指空國師가 창건하고 그후 조선 宣祖 三八년(一六〇五)중 창하고 조선 肅宗 一三(一六八七) 重建하였다. 大雄殿은 정면 三칸 측면 二칸 八作 지붕이고 冥府殿은 정면 五칸 측면 二칸 맞배지붕이며 泛鍾樓는 정면 측면 各 三칸이며 重層으로 八作 지붕이다.	佛敎辭典
②5 水淨寺(水晶寺)	靑松郡 巴川面 松江洞 三	고려 恭愍王 때 懶翁大師가 創建하였다고 전해지고 境內에는 大雄殿·山神閣 및 寮舍가 있는데 大雄殿은 正面 三間, 側面 二間에 特異한 多包式으로 맞배지붕을 한 조선시대 樣式의 건물이며 그 후측과 전방 한쪽에 山神閣과 寮舍가 있다.	靑松의 香氣
②6 莊陸寺	盈德郡 蒼水面 葛川洞 一〇九	고려 중엽에 創建한 寺刹로서 고려말엽 恭愍王朝에 蒼水面 출신이며 當代의 高僧 懶翁禪師가 重創하여 現在에 이르르고 있으며 釋迦如來 僧像을 奉置하고 있으며 法堂과 누각 그리고 寮舍가 있다. 누각은 정면 五칸 측면 二칸 맞배지붕이며 法堂은 정면 三칸 측면 三칸의 맞배지붕이다.	내고장 전통가 구기
②7 護國寺	晋州市 上鳳東洞	原來는 고려時代に 創建하여 山城寺라고 불려왔으며 麗末때부터 倭敵의 침입이 심해 이곳에서 僧兵을 養成하였다고 傳한다. 壬亂時 소실되었으며 壬亂後 寺刹名을 護國寺로 賜額받아 지금에 이르렀다고 하며 最近 晋州城廓 보수당시 一柱門址를 地下 二m에서 發見하여 現在의 門으로 新築되었다. 지금의 건물은 現代에 建立했다.	내고장 傳統
②8 龍巖寺址	晋陽郡 二班城面 龍岩里 二〇七	넓은 대지위에 옛 寺址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龍岩寺址라 불리고 있다. 이곳에 흩어져 있는 浮屠, 石佛坐像의 彫刻手法으로 보아 고려時代 作品으로 推定되는 바 元來 이곳에는 고려 時代に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寺址內에는 鄭氏齋室이 建立되어 있고 現代에 龍岩寺를 건립하여 石佛坐像을 奉安하고 있다.	내고장의 傳統
②9 寶林寺址	昌寧郡 靈山面 九溪里山 八六	靈鷲山 南麓에 해당되는 九溪里 部落에 있었다. 절로서 지금은 民家化되고 경지화 되었다. 고려時代に 큰 절이 있었다고 傳해올 뿐이며 이곳에 있었던 塔은 영산국민학교로 옮겼다고 한다. 現在 球形浮屠 一基가 寺址에 遺存하고 있다.	古墳資料
③0 萬魚寺址	密陽郡 三浪津邑 龍田里 山 四	寶物 四六六號인 萬魚寺 三層石塔이 있는 경내로서 지금도 萬魚寺가 있다. 附近에 舊建物 址가 遺存하고 있다. 萬魚寺에 關한 記錄은 《三國遺事卷 第三 魚山佛影條》에 「又按大定十二年庚子 即明宗十一年也始創萬魚寺……」라고 되어 고려 明宗 一一年(一一八一)에 萬魚寺가 創	미리벌의 열

寺 및 寺址名	位 置	主 要 內 容	參 考 文 獻
③1 密陽崇眞里寺址	密陽郡 三浪津邑 崇眞里 四〇六	고려時代 寺址로 推定되며 耕作地로 되어 있다. 寶物 四六八號로 指定된 崇眞里 三層石塔 寺址內에 있으며 이塔의 製作手法으로 보아 고려時代의 寺址로 判斷하고 있으나 確實한 考證이 어렵다.	古蹟資料
③2 固城大法里寺址	固城郡 永縣面 大法里山 一五	望時山 南麓에 있으며 고려時代의 龜岩寺址라고 불리고 주위에는 瓦片이 散亂하여 門址로 推定되는 礎石 二枚가 殘存하고 있다.	
③3 龜岩寺址	南海郡 昌善面 赤梁里 一 三六의 六	고려 초기에 현재 建溪亭 부근에 乾興寺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 부근에 石造觀音立 像(寶物 제三七八호) 一軀가 남아 있을뿐 더 다른 유구가 보이지 않아 당시 사찰의 규모와 내 용을 알 수 없는데 불상이 보여 주는 양식과 조각수법등이 고려시대임을 알려주고 있어 시대 를 추정할 수 있다.	古蹟資料
③4 乾興寺址	居昌郡 居昌邑 上洞 山 二四	고려 중엽에 元興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전하며 이곳에는 높이 五m의 石佛立像, 가로 一· 三二m, 세로 六六cm의 가공석재, 石燈의 臺石 및 幢竿이 있다.	
③5 元興寺址	長水郡 山西面 馬下里	東國輿地勝覽에 依하면 이 寺利은 고려 초기 文宗朝(一世紀)에 建立한 大雄殿, 藥師殿, 千 佛殿, 靈山殿, 普應殿, 鍾閣, 羅漢殿, 冥府殿, 佛殿等이 있었다고 傳하고 遺物로는 寶物 第三 〇號 五層石塔, 寶物 第三二號 石座臺, 寶物 第三三號 幢竿支柱, 寶物 第四三號 石佛立像이 있다.	(별도해설함)
③6 萬福寺址	南原市 王亭洞 四九四	井邑郡 淨雨面 大寺里 中腹에 있으며 고려 忠烈王 二五(二九九) 僧 張曇雲의 창건이라 하는데 그沿革은 자세히 알 수 없다.	井邑郡誌
③7 淨土寺	井邑郡 淨雨面 大寺里 二八	開岩寺는 고려 肅宗때 圓鑑國師에 의하여 창설되고 조선 仁祖 一四(一六三六)과 孝宗 九 年(二五八)에 大雄殿이 重建되었는데 正祖 七(一七八三)에 勝潭禪師가 重修하여 오늘에 이른다. 정면 三칸, 측면 三칸 八作지붕 건물이다.	指定文化財해설
③8 開岩寺大雄殿(寶物 二九二)	扶安郡 上西面 甘橋里 七一四	고려 明宗 二四(九九七) 普照國師가 創建하였고 一四〇三(一四〇三)年 始學大師가 重修 一九三一(一九三一)年 住持 金煥海大師가 改築하였다. 寺內에는 木造瓦葺建物로 法堂 正面 三間 側面 二間, 七星堂 三間, 鍾閣 三間, 寮舍채 四間 등이 있다.	
③9 寒山寺八	麗永市 鳳山洞 九三六	고려末 圭峯禪師가 創建한 寺利로 六·二五(二五) 廢寺되었던 것을 一九五七(一九五七)年 李漢圭, 住	
④0 圭峯寺	和順郡 二西面 永坪里		

寺 및 寺址名	位 置	主 要 內 容	參 考 文 獻
41) 寒山寺址	和順郡 同福面 新栗里山 九四九	고려시대에 創建한 寒山寺는 유래를 알 수 없고 浮屠塔과 三層石塔이 남아있다. 向陽里 生陽부락과 塔洞일대에 있던 절터로 口傳되어온 바에 의하면 고려초에 中寧山일대에 生陽寺라는 巨刹이 있었는데 부족사찰로 億佛山の 절, 杏園寺, 獅子山の 義尚庵 등이 있었으며 寺刹林과 寺田이 巨大했었다고 한다. 지금도 向陽里 金漢檜翁의 生家에서는 大雄殿의 초석인듯한 石材와 기와가 발견되고 마을뒤에 石碑石佛의 조각과 塔材가多數발견됨.	내고장전통가 꾸기
42) 生陽古寺址	長興郡 長興邑 向陽里	고려초기에 장택고씨가 이 古山寺라는 절을 건립했고 姓을 따라 古山寺라고 했다」는 傳說이 있는데, 지금 절은 없고, 石造藥師如來佛像이 一軀있으며, 一九七五년에 최기현씨가 조그만 암자를 이곳에 세워서 이 佛像을 안치했다.	長興郡 鄉土誌
43) 古山寺址	長興郡 長平面 龍岡里二 區山 二九一	華芳寺는 道岩面에 所在한 白蓮寺의 庵子로서 고려熙宗 七年(一一二一)圓妙國師가 創建한 以後寺刹名을 沈불암, 고성암, 望月庵, 華巖庵으로 하다가 華芳寺라 개칭했다 한다.	
44) 華芳寺	康津郡 君東面 華山里 一九	고려때 眞覺國師가 創建하였다고 하며 어는 때 寺刹이 폐허됐는지는 모르나 壬亂시에 왜적들에 의해 전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現在 寺址에는 模塼石塔과 石碑가 남아 있을뿐 지금은 月南寺가 폐허되고 月南마을이 현존할 뿐이다. 현재 塔과 碑一基씩이 있다.	古蹟資料
45) 月南寺址	康津郡 城田面 月南里 八五五	고려 仁宗 五年(一一二七)에 인도의 宇間國 僧 원명조사가 五〇〇여명의 제자들과 같이 여가와서 王道를 得達했다고 전하며, 덕이 조사가 원명조사의 뜻을 이어 牧牛庵이라 칭했고, 조선시대 중수한 후 法泉寺라고 改稱했다고 전한다. 현재는 牧片庵이라고도 하며, 境內에는 大雄殿 祝聖閣과 木佛像 三點과 石燈 一點이 있다.	내고장 전통가 꾸기
46) 法泉寺	務安郡 夢灘面 達山里 九五六	高麗時代에 八個의 附屬寺刹이 있었던 곳으로 僧 震默大師의 舍利가 奉安된 塔이 있다.	長城郡史
47) 鷺樓寺址	長城郡 西三面 鷺岩里	고려시대에 金骨山 아래 現 金城國民學校 校庭에 있는 五層石塔 바로 뒤 山쪽으로 規模가 상당히 큰 寺刹이 있었다고 한다. 이 부근에 있는 石塔을 보아 추측을 가능하게 하나 現在 흔적은 거의 없고 一九七三년 校地를 정리중 응장한 石材와 礎石, 溫突痕跡, 瓦片 등이 出土되었다.	古蹟資料 珍島郡誌
48) 海堰寺址	珍島郡 郡內面 屯田里 三七		
49) 上萬寺址	珍島郡 臨淮面 上萬里 六七五		古蹟資料

年度	遺蹟名	時代	所在地	發掘機關	發掘期間	參考文獻	備考
一九七七	金生寺址	高麗	忠北 清原郡 文義通 德留里	文化財研究所	一九七二・三・三三	金正基・李浩官・趙由典・安春培・朴永福、 《大清陵 永沒地區遺蹟發掘報告書》	
一九七八	中原彌勒里寺址	高麗	忠北 中原郡 上峯面 彌勒里	清州大博物館	一九七九・一〇・一八	《彌勒里寺址 二次發掘調查報告書》	
一九七九	萬福寺址	高麗	全北 南原市 王亭洞	全北大博物館	一九七九・一〇・一六	《南原 萬福寺址 一次發掘略報》《古文化》 一八・一九八〇	
一九八三	法華寺址	高麗	濟州 西歸浦市 下原洞	明知大博物館	一九八三・一六・二五	《法華寺址發掘調查報告書》一九八三	
一九八三	桐藪彌勒寺址	高麗	大邱 東區 龍水洞 八公山	慶北大考古人類學科	一九八三・四・二五	文化財管理局 許可 資料	
一九八三	丹陽 逸名寺址	高麗	忠北 丹陽郡 丹陽邑 中房里	東國大博物館	一九八三・一〇・二七・二・二六	《丹陽 逸名寺址發掘調查報告書》一九八三・ 八四年度》《忠州報報告書》	
一九八四	雲住寺	高麗	全南 和順郡 道岩面 大草里・ 龍岡里	全南大博物館	一九八四・五・一五・七・三〇	全南大博物館 古蹟調查報告書	
一九八四	清平寺	高麗	江原道 春城郡 清平里	江原大 產業技術研究 所	一九八五	江原道 春城郡 清平寺 實測調查報告書	
一九八六	居頓寺址	高麗	江原道 原城郡	世社建築文化研究所	一九八六	居頓寺址 石物實測 및 地表調查報告書	
一九五九	佛日寺址	高麗	板門郡 山跡里 寶鳳山 南麓	世社建築文化研究所	一九五九・六・二六	高麗佛日寺調查研究《朝鮮學報》(第一一三輯)	
一九六九	晚日寺	高麗	忠南 天原郡 天興里 聖居山麓	世社建築文化研究所	一九六三	李殷昌、聖居山 晚日寺 調查報告、古文化 第五・六合輯	
一九八五	檜岩寺址	高麗	京畿道 楊州郡 檜泉面 檜岩里	세한건축문화연구소	一九八六	楊州郡 檜岩寺址 現況調查 一次調查報告	

〈表三〉 光復後發掘 또는 實測調査된 高麗寺院(址)

⑤ 法華寺址(地記一三) 一〇七一	南濟州郡 中文面 河原里	高麗	忠北 清原郡 文義通 德留里	文化財研究所	一九七二・三・三三	金正基・李浩官・趙由典・安春培・朴永福、 《大清陵 永沒地區遺蹟發掘報告書》	
⑤ 水精寺址	濟州市 外部一洞 四九〇	高麗	忠北 清原郡 文義通 德留里	文化財研究所	一九七二・三・三三	金正基・李浩官・趙由典・安春培・朴永福、 《大清陵 永沒地區遺蹟發掘報告書》	

水精寺는 고려末 忠烈王 三〇年(一三〇四)에 都近川 西側에 다 元의 皇后가 創建하였다고 傳해져 오고 있다. 現在 이곳은 주춧돌이 몇개 그대로 남아있으며 民家 울담의 一部로 된 것도 있다. 이 주춧돌의 規模로 보아 相當한 大寺刹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 元宗 一四二(一二七三) 四월 濟州道에서 抗拒하던 三別抄 餘黨을 고려와 몽고의 연합군이 平定하고 이곳을 東方侵略의 근거지로 한 後부터 元의 불교와 神敎가 들어와 사방에 寺刹과 神堂이 旺盛해졌다. 이 무렵 세워진 것으로 推定되는 法華寺址에도 잘 가공된 주춧돌을 찾을 수 있는데 水精寺址와 비교하면 規模는 못하나 技巧는 훨씬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法華寺址發掘報告書

四、高麗時代寺院의 遺構例

(一) 萬福寺址

◎ 位置 및 地理的 環境

全羅北道 南原郡 南原邑 王亭里였으나 근래에 南原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南原市 王亭洞으로 불리운다. 南原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약 1·5m 떨어져 국도변에 자리잡고 있는데 寺址 북쪽에는 해발 二八五m밖에 안되는 낮은 麒麟山이 있어 寺域의 背山을 이루고 있다. 寺址의 남쪽은 비교적 광활한 평지이고 寺址 동쪽에는 丑川이 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서쪽에는 낮은 구릉에 土城이 있다. 一九八〇년 麒麟山 남쪽 斜面에서 石劍·石鏃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百濟시대에는 南原을 古龍郡이라 하였고 新羅 神文王 四년(六八四)에는 小京을 두었는데 高麗 太祖 二三年(九四〇)에 府로 고쳤고 忠宣王 二년(一一三〇)에 다시 帶方으로 삼았다가 뒤에 南原郡으로 고쳤다. 朝鮮 太宗 一三年(一四一三)에는 都護府로 고치고 世祖 때에는 鎭을 두었다.^⑮

이 萬福寺址에는 동쪽에 보물 제3〇호로 지정된 高麗 五層石塔이 있었고 그 북쪽에 좀 떨어져 역시 新羅말이나 高麗초기의 것으로 믿어지는 石佛立像이 지하에 깊이 묻혀 있었다. 또 石塔의 서쪽에는 큰 殿址가 있고 그 중앙後部에는 六角으로 된 石座가 있다. 寺址남쪽 도로변에는 石佛立像(守護神像을 조각한 幢竿支柱라고 함)이 있고 그 북쪽에 좀 떨어져서 幢竿支柱가 있다. 이 표면적인 石物에 대한 조사보고는 이미 발표된 바 있었지만^⑯ 寺址는 一九七九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발굴 조사에 의하여 자세히 밝혀지기 시작하였는데 伽藍은 기록과 같이 西殿 東塔형식을 취한 듯하다. 그 외의 殿址나 石塔址 등이 발견되어 좀 중복된 伽藍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후에 자세히 검토할 것

이다.

◎ 沿革

萬福寺에 대한 記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먼저 그 자세한 기록으로서는 東國輿地勝覽^⑰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萬福寺가 麒麟山에 있다는 것과 高麗 文宗 때(一〇四六~一〇八三)에 창건되었다는 것, 西殿東塔 伽藍이며 內殿에 길이三五尺이나 되는 銅佛이 있었다는 중요한 기록이다. 또 姜希孟(四二四~一四八三)의 詩에 의하면 世祖末 成宗 初年 간의 萬福寺가 번성하였음을 입증해주며, 金鑿新話·萬福寺 樗浦記^⑱에는 成宗年間까지 萬福寺에서 燃燈會 등이 열려 南原郡民들의 祈福道場으로 士女까지 모여 들었던 사실을 전해준다. 또 龍城志 上佛宇條^⑳에는 世傳으로 되었지만 羅末의 所建이란 說을 알려주고 丁酉再亂으로 거의 다 燒盡되었음과 大雄殿·藥師殿·丈六殿·窺山殿·普應殿·千佛殿·羅漢殿·冥府殿 등의 건물 遺址 명칭이 알려지고 있다. 또 諺傳으로서 道說의 所建이라는 것과 南原府의 地勢를 鎭壓하기 위해 造佛建塔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前揭 龍城志梁慶遇(二五六八~一六三八)의 詩에서 萬福寺가 新羅시대에 창건하였는데 불타 없어졌음을 묘사하였고 銅佛像의 半身이 그때까지 남아있었음과 石橋가 寺址 앞에 놓여있었음을 시사하고 丁酉再亂이후에 폐허가 되었음을 알려준다.^㉑ 이상의 기록을 종합하면 輿地勝覽에서 萬福寺는 高麗 文宗 때 창건되었다고 하나 그 이전부터 舊地에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丁酉再亂 때에 燒失되기 전까지는 동쪽에 五層木塔과 서쪽에 二층 金堂을 비롯하여 殿內에 三五尺의 銅佛과 石橋와 十餘 佛殿이 배치되어 있던 大刹이었음을 알 수 있다.

◎ 遺構의 概括

○ 西金堂址

六角佛座臺石과 礎石, 고막이石과 基壇石 등 비교적 遺構가 잘 남아 있다. 대체로 南向인 정면 五칸, 측면 四칸의 건물로서 內外陣의 柱礎石列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㉒에 따르면 正面 中央 三칸으로 柱間거

리가 四三五(당시 一四尺)cm이며 그 左右間은 三七八(당시 一二尺)cm, 側面 柱間은 三七·五cm이다. 內陣 北東側에는 礎石과 고맥이 돌이 남아 있는데 柱座나 下枋이 놓이는 곳의 물딩은 統一新羅時代의 것과 유사하나 礎石의 높고 線이 굵은 것이 차이점이랄 수 있다. 積心石은 一〇〇cm 이상의 대형 板石을 한 장 놓고 그 위에 川石과 割石을 올려 놓은 것과 長方形의 割石 또는 板狀石을 二~三장 놓고 그 위에 川石, 割石을 놓은 것, 또는 川石과 割石만으로 積心을 만든 것이 있는데 前者들의 경우 益山 彌勒寺址에서도 볼 수 있었던 百濟系 積心수법의 한 예로 볼 수 있었다. 內陣隅 礎石의 고막이 形과 北東의 고막이 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內陣의 三면을 佛壁처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보고서에 의하면 基壇의 크기는 동서 길이 二四·七m, 남북 一九·二m로서 비교적 正方形에 가까운 평면을 하고 있다. 基壇은 地臺石 二단과 面石·甲石, 그리고 中央部에 세로線 물딩을 한 撐柱로 구성되었는데 이 撐柱 역시 彌勒寺址의 高麗代 건물지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하였다. 基壇의 높이는 약 一·一m 내외로 추정되며 그 내부는 갈색 砂質土로 되어 있고 基壇 上面은 三九cm×三九cm×四cm와 三九cm×一二cm×四cm 규격의 塼을 깔았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基壇의 전면 및 후면 중앙과 東側面의 남쪽에 치우쳐 階段址가 놓이는데 남쪽 중앙의 것이 제일 넓어 계단 內幅이 二四五cm이다.

이 西金堂址의 內北쪽 중앙에 있는 六각의 佛臺座는 전술한 靑銅佛이 놓였던 臺座로 믿어지는데 下臺와 竿柱, 上臺로 된 거대한 一板石으로 下臺의 한 변이 一·二m이며 面에는 眼像을 조각하고 覆花盤式의 覆瓣과 上臺는 仰花形을 이루었던 것 같으나 파손이 심하다. 座臺의 높이는 약 一·四m 정도이다. 또 西金堂址기단 남쪽에는 南으로 四·二m까지 川石으로 鋪石을 하였는데 이 鋪石은 동쪽에 있는 木塔址의 前面 것과 이어진다. 西金堂址 南邊에서 四·八m 떨어진 곳에 한 변이 약 一·二m 되는 方形 臺石이 있는데 이것은 石燈址로 추정된다. 이 西金堂址의 土層調査에서 現遺構의 下層에서는 先代의 遺構가 확인되었다 하는데 이

것은 일부조사로 그칠 수 밖에 없었다 한다.

。木塔址

西金堂址의 동쪽 중심거리 二六m에 위치하며 東西橫軸으로 보아 西金堂 中心보다 남쪽으로 약 二·五m 치우쳐 있다. 正側面이 共히 五間, 柱間거리가 一·八m로서 礎石은 圓形 柱座를 갖는 圓形礎石이다. 柱座는 그 주변이 물딩이 아닌 傾斜面을 이루어 楡두가 三cm내외인데 이것 역시 益山 彌勒寺址의 회랑址 礎石과 거의 같은 형식이나 다만 彌勒寺址의 것은 柱座 높이가 一·五cm내외로 낮은 편이다.

本塔址에는 心礎石이 없고 礎石이 마치 바둑판에 바둑을 배열하듯 건물 내부에 빠짐없이 놓여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法住寺의 捌相殿과 같은 구조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捌相殿에는 心柱와 그 礎石이 놓이는데 여기서는 心礎가 유실되었는지 그 확실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心柱가 地上에서 떠있었거나 또는 心礎가 도중에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하간 柱間 五間을 이용한 五층의 木塔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基壇線은 邊柱에서 一·九m의 부로 나와 있는데 한 변이 一二·八~一三·二m인 正方形이다. 基壇의 형성은 地臺石과 面石, 그리고 撐柱 및 甲石을 짜아 만든 것으로 地臺石은 地表에서 약 七cm높이로 노출되었고 그 위에 六七cm높이의 面石이 놓였으나 甲石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基壇외의 鋪石바닥과 基壇內 礎石上面의 高低差로 보아서 基壇의 높이는 一m내외로 추정된다. 基壇土는 明赤褐色의 산흙으로 安全土를 이루고 있다.

木塔址의 南·北邊 중앙에는 階段이 있는데 그 內幅이 八六cm~八八cm이며 踏高一七m, 踏幅이 二四cm이다. 특이한 것은 圓弧形 隅石인데 一/四圓形의 두께 二〇cm내외되는 一板石으로 이루어졌는데 잘 남아 있는 북쪽부분을 보면 地臺石 위에 놓인 밑부분의 길이가 八九cm, 높이가 八〇cm이다. 이 隅石의 上面은 볼록하여 물딩한 帶를 縱으로 施文한 것이다. 이렇게 圓弧形의 階段隅石을 이루는 것은 淸平寺能仁殿址 基壇앞이나 檜岩寺기단 昌慶宮 明政殿 月臺 앞 등에서 볼 수 있어 대체적으로

高麗時代나 朝鮮 초기에 사용된 隅石형식의 사용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木塔址 중심에서 남쪽으로 二·一·一 m 되는 지점 즉 中門과 木塔址 중앙點에 石燈址가 놓였는데 한변이 약 一·一 m 내외인 地臺石과 그 위에 八葉覆蓮의 基部로서 그 중심에 竿柱子멍이 뚫려 있는데 조각은 많이 훼손되었다.

○ 北金堂址

木塔址에서 북쪽으로 一六·二 m 중심거리에 위치한다고 보고되었지만 보고서의 配置平面圖를 살펴보면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이곳은 정면 五間, 측면 四間の 内外陳을 둔 建物址이다. 柱間의 거리는 正面面과 같이 一三五 cm로 당시 사용최도로서 七·五尺式(三一·二~三一·三 cm 즉 一·〇(二九尺)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內陳의 東北隅側에 佛座臺와 관련된 石造物로 생각되는 蓮花臺가 있는데 그 직경은 약 一·四 m이다. 北金堂址의 礎石 역시 圓形柱座를 갖는 圓形礎石이다. 基壇은 邊柱 위치에서 正面面 共히 약 二·一 m 外線에 한정되는데 그 전체 규모가 東西 一六·二 m, 南北 一三·八 m로 역시 正方形에 가까운 平面을 보인다. 基壇도 地臺石과 面石, 그리고 甲石으로 짜여 있는데 舊地表와 礎石의 높이로 보아 그 높이가 약 一·二 m 정도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基壇의 南北邊 중앙에는 階段址가 확인되었고 北金堂址 중심에서 남쪽으로 一三·七 m 지점에 石燈下臺覆蓮石이 있는데 비교적 斜角이 뚜렷한 수법을 보여준다. 특히 北金堂址 基壇 石列 內側(건물 內側) 五〇 cm 거리에는 瓦積의 基壇이 있었는데 瓦片을 세우거나 닦아서 쌓은 것이다.

○ 東金堂址

이 건물지는 木塔址 중심에서 東으로 二五·二 m 지점에 그 중심을 두고 있으나 東西 橫軸에서 北으로 약 八〇 cm 치우쳐 있다. 正面 三間, 側間 三間的 柱間거리는 正面 中央間이 四八五 cm로 당시의 一五·五尺을 잡고 그 협간 및 側面 柱間은 모두 三二五 cm로 一〇·五尺으로 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남아있는 礎石 柱座에 고막이가 새겨져 있고 또 西北귀에 고막이돌이 남아 있어 잘 갖추어진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基壇의 규모도 東西 一六·八 m, 南北 一五·二 m 내외로서 거의 正方形에 가깝다.

基壇의 地臺石과 面石이 일부 殘存하여 石架構式 基壇임을 알 수 있고 높이 역시 一 m 이상으로 추정된다. 南邊 중앙에는 階段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파손이 심하여 확인하기 어려웠다. 基壇의 築成은 川石·割石과 黃色粘質土로 되어 있었고 瓦片과 土器片·磁器片이 혼입되어 있었다 하는데 이 층에는 靑磁器片과 白磁片이 많았다 한다.

○ 中門址

木塔址 남쪽 중심거리 二四·二 m에 南北軸에 맞추어 위치하는데 正面 三間만이 확인되었으나 발굴자는 正面 五間, 側面 二間으로 추정하였다. 柱間거리는 正面이 二九〇 cm, 側面이 二二五 cm로 산정하였다. 여기에서도 圓形礎石 일부가 발견되었고 長臺石으로 된 基壇石이 일부 노출되었다. 基壇의 추정 규모는 東西 一八·四 m, 南北 九·〇 m이다. 中門址 南邊 중앙에 階段址가 놓였는데 그 폭은 三·七 m이다. 中門址의 東·西 兩側에는 南廻廊址가 연결된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나 이 南廻廊址가 北折한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 講堂址

講堂址는 北金堂址에서 중심거리 三六·七 m 북쪽에 위치한다. 全面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正面 七間, 側面 五間으로 추정된다. 柱間은 正面 中央間이 五八〇 cm 좌우 狹間 三九〇 cm, 側面이 共히 三二五 cm이다. 보고서는 講堂址 基壇의 규모를 二九·八 m × 二〇·八五 m로 추정하였다.

○ 기타 遺構 및 伽藍性格

이상의 중요 伽藍遺構 외에도 講堂址의 주위와 寺域 동쪽의 건물지를 비롯한 石塔址, 그리고 現存 石佛立像 및 五層石塔이 있는데 이들은 萬福寺 創建때부터 있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創建時의 遺構로 생각되는 것은 基壇土가 비교적 안정된 木塔址와 西金堂址 下部에서 노출된 現在의 西金堂址보다 先行된 遺構

라 하였다. 그리고 東·北金堂址의 基壇에서 출토된 기와片이나 유물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축성연대를 朝鮮初로 추정하므로써 三金堂一塔式伽藍은 朝鮮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론하고 당초에는 기록에 나타나듯이 西殿東塔의 伽藍이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만일 木塔址를 원래 伽藍의 中心 건물로 추정한다면 이塔의 南北中心軸線上에 계획적으로 배열한듯한 中門과 北金堂講堂 등 前代부터의 전통적인 一塔式伽藍을 後代의 것으로만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또 하나는 이들 金堂址에서 비록 朝鮮時代의 건물이 섞여 나왔다고는 하나 基壇의 築構方式과 礎石의 형식 등은 高麗시대와 것으로 추정되고 出土瓦當도 高麗 때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朝鮮시대에 重建 再築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石塔과 東金堂 北側에 있는 石塔址의 시대적 계획 배치문제이다. 보고서에는 現存하는 五層石塔보다도 더 先代로 보이는 石塔址에서 高麗초기에 속하는 石塔材 屋蓋石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統一新羅시대의 石塔樣式과 통하는 것이다. 이塔址의 북쪽에 五層石塔이 놓이고 그 북쪽에 石佛立像이 있는데 一九八七年 九月 整備工事를 위한 石佛 주위 발굴로 원래의 佛臺座石을 발견하였고 또 建物址가 일부 확인되었다. 이 臺座石과 五층석탑, 그리고 石塔址는 그 중심이 南北軸 일직선상에 놓이므로 이들은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石佛立像 역시 羅末麗初의 佛像으로 추정되어 前記 石塔材와의 관련성을 연상케 한다.

그러므로 萬福寺址의 伽藍은 기록에 설명하듯 木塔址와 西金堂을 中心으로 하여 中門·北金堂·講堂址를 연결하는 一塔式伽藍으로 보이고 또 東金堂址까지 합하여 三金堂式伽藍도 나타내는 복합요소가 존재한다. 또한 東側에는 石塔과 石佛 등 일련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 복합된 伽藍의 시대적 구분도 더 깊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 믿는다.

○ 出土된 기와類

이發掘조사에서는 숫막새 五八三점과 암막새 八五三점이 收拾되었다. 이들의 出土區域과 文樣을 분류하여 그 특징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먼저 숫막새로서 四葉蓮花紋·八葉蓮花紋과 多葉蓮花紋·日暉紋·梵字紋 등이 있는데 이중 四葉蓮花紋이 시대적으로 가장 앞선 것같이 이와 共伴된 암막새는 雙鳥紋으로서 統一新羅期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 四葉蓮花紋은 子房과 蓮瓣이 불룩하게 양각된데다 蓮瓣을 三道의 線으로 세로로 질러 左右로 갈라놓는 듯하고 蓮瓣과 蓮瓣의 사이에 도 子房에서부터 周緣측으로 線으로 구획하여 마치 高句麗 것인듯한 紋樣을 보이고 있으나 주연에 蓮珠를 돌린 것은 統一新羅式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막새기와의 시대는 확실치는 않으나 統一新羅末이나 高麗初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대가 비교적 앞서는 瓦當은 木塔址·西金堂址와 講堂址 등지에서 소수 출토되었고 그 외에는 八葉紋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 역시 西金堂址와 木塔址, 그리고 中門址에서 많이 나왔다. 대부분 八葉과 多葉의 瓦當은 그 문양의 특징이 高句麗의 것과 百濟의 것과, 또 新羅의 것이 혼용된 듯하다. 日暉紋도 주로 講堂址·西金堂址·木塔址 등지에서 다량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高麗瓦當이다. 또 銘文瓦當에서 時代가 가장 앞서는 것이 天順 六年(一四六二) 것이고 가장 낮은 것이 萬曆 三六六年(一六〇八) 銘이며 가장 많이 出土된 것은 嘉靖 四五年(一五六六)의 것이다. 기와의 등두의 중에도 어느 것은 三國時代(百濟式이 많은)의 특징으로 알려졌다. 大線壓面形의 무늬도 나타나 있어 주목을 끈다. 鷓尾片 역시 高麗 때의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그리 흔하지 않은 귀중한 자료가 된다.

(二) 興王寺址

◎ 位置 및 地理的 環境

이미 前述한 바와 같이 興王寺는 高麗 文宗이 一〇六七년에 創建한 巨刹이다. ② 또 같은 기록에 의하면 同 二四四年(一〇七〇) 二월에는 慈

民殿을 신축하고 同年 六月에 興王寺 주위에 城을 쌓았다. 三二년 七月에 金塔을, 三四년 六月에 石塔을 造成하였다. 이 절은 高麗의 大伽藍으로서도 重要性을 보이지만 한편 大覺國師 義天이 續藏經 雕造사업을 펼친 곳으로 우리 文化史의 重要한 章을 이룬다. 興王寺는 현재 軍사분계선 이북에 있어 가볼 수 없는 開豊郡 鳳東面 興王里 久村洞에 있다. 寺址 사방에는 여러 산봉우리가 둘러져 盆地 같아 광활하면서도 아늑한 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마치 高麗 王宮址 滿月臺에서 보는 開京의 주위 환경과 매우 흡사함을 느낀다고²⁷⁾ 한다.

◎ 遺構의 概括

이 寺址의 調査는 一九四八年 국립박물관 서울본관과 개성본관이 합동으로 하였으나 당시 五일간의 짧은 기간에 試掘로 그친 상태여서 자세한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보고²⁸⁾에 의하면 寺址는 광활한데 中央部 一段 高臺地의 伽藍과 東·西양쪽에 각각 平坦한 臺地가 있어 中央伽藍과 石築으로 구획된 伽藍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가람은 中心廊을 이루어 南向을 하고 있다. 中央伽藍에는 北側에 거대한 규모의 講堂址가 있고 그 앞에 金堂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있으며 南北軸線上의 前面部에는 石燈址가 있고 그 양측에 八角段址(木塔址로 추정함)가 놓였고 伽藍 앞에는 中門址가 있으며 이 中門과 講堂址를 둘러싼 廻廊址가 있다.

○ 木塔址

正八角形의 石造段築基壇을 쌓았는데 맨 아래에서는 地臺石 一枚를 둘리고 그 위에 三단의 長臺石을 쌓아 面石을 이루었고 八면의 隅柱石을 배치했다. 東塔址의 東西측에는 階段址가 있다. 이 八角殿址의 基壇一邊長은 五·六九m로서 全幅이 一一·七三m였다. 基壇의 높이는 現存하여 있는 石築段의 高가 八七cm, 隅柱의 높이가 九六cm인 것으로 보아 基壇은 더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八角兩塔址間의 거리는 六三·五m라고 한다. 보고서에는 이 興王寺와 거의 비슷한 시기인 中國遼代(一〇五六년) 八角塔址로서 佛宮寺의 八角木塔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木塔은 現存하는 中國木塔으로 가장 오랜 것이다.

○ 石燈址

이 兩塔址를 연결한 선에서 조금 北方인 南北中心軸線上에 놓인 石燈址는 八角의 地覆石과 二단의 八角 基臺石이 있는데 一邊長이 밑단에서 부터 九〇cm, 七二cm, 六七cm 되는 것으로 基石의 各面에는 花紋과 雲紋을 陽刻하였다.

○ 金堂址

一邊二·三尺의 方形礎石이 三개 노출되었다는 것 외의 다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 講堂址

基壇과 礎石이 파괴되었고 다만 建物址로 추정되는 곳 주변에 거대한 有孔 礎石이 여러 줄 배치되어 주목되었다고 한다.

○ 廻廊址

남쪽과 서쪽에서 礎石配列이 잘 나타나 있고 기타 東側과 西側은 분명치 않았다고 한다.

○ 伽藍形態

東伽藍址는 西伽藍址와 마찬가지로 中央伽藍址와 石築으로 구획되었는데 그 남쪽에 中央의 것보다 작은 규모의 築臺와 中門址로 보이는 것이 있고 그 中央에 階段址가 추정되고 南便中央에 비교적 다수의 礎石으로 된 建物址와 그 北쪽 高臺上에 建物址가 있다.

西伽藍址도 역시 東伽藍과 유사하게 남쪽에 石築이 있고 그 안 남쪽 中央部에는 石塔址가 있으며 북쪽에는 建物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中心廊外에도 서쪽 높은 지대와 그 남쪽에 독립된 建物址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었고 배치도에 나타난 것을 보면 中央伽藍 북측 高臺와 東伽藍址 동북측에도 建物址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어 寺域은 지극히 광대하였던 것 같다.

이곳 石塔에 대하여는 金塔을 만들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石塔을 세웠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⁹⁾

이렇게 미흡한發掘로 지금은 가볼 수 없는 유적이니 기록에 나타나지는 大藏殿^⑧이나 茲氏殿^⑨ 등의 중요건물이 어느쪽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다만 伽藍配置에 있어 益山の 彌勒寺址와 같이 東·中·西院으로並列로 形成되었다는 것이 특이하다.

이곳에서 출토된 瓦當은 東八角殿址에서 주로 나온 日暉紋의 瓦當이다. 또 몇개의 鷓尾片이 塔址와 西廻廊址 부근에서 출토되었다 한다.

(三) 興德寺址

◎ 位置 및 地理的 環境

興德寺는 忠淸北道 淸州 시내에서 社稷洞으로 가는 淸州大橋를 건너 서쪽 제방을 따라 북쪽으로 1km쯤 가다가 왼쪽의 들판을 건너 해발 123m의 梁岳山이 있는데 그 主峯에서 동남쪽으로 떨어진 산기슭의 낮은 구릉에 위치하여 지금은 이 지역이 淸州市 雲泉洞 五一五一一에 해당된다. 地形으로 보아 南西와 西北 그리고 東北쪽은 구릉으로 둘러싸인 좁은 지역의 평지를 이용, 남향하여 伽藍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⑩ 되었고 속칭 蓮塘里에 위치하여 寺址 이름을 蓮塘里寺址로 불렀다.

◎ 寺址 發掘調査 經過

이 寺址는 부근 지역의 택지개발조성으로 인해 거의 파괴되었던 것을 一九八五년에 淸州博物館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이에 앞서 一九八二년에 이 지역 부근에서는 六八六년(垂拱二年)에 造成된 『新羅寺蹟碑』가 조사 보고^⑪된 바 있고 또 一九八四년에는 이 興德寺址로부터 약 八〇〇m 떨어진 곳에서 소위 雲泉洞寺址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⑫ 이곳에서는 靑銅도가나가 여러 점 수습되었음은 당시의 주목거리였다. 이렇게 雲泉洞寺址를 발굴조사중이던 一九八四년 一一월에 興德寺址가 있었음이 당시 조사원에 의하여 밝혀졌는데 이때에도 절 이름을 알 수는 없었다.

興德寺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에도 이미 土取 조성한 宅地에서 靑銅小鏡을 비롯하여 靑銅金剛杵를 비롯한 佛器 다수와 靑銅禁口를

수습했고 寺址內 발굴조사중 西廻廊址에서 『桂香之寺』銘瓦가 출토되었 으며 또 寺址의 동쪽에서는 『興德寺』銘^⑬ 靑銅佛鉢뚜껑에서도 『興德寺』^⑭란 이름이 나타났으므로 이곳이 틀림없는 現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高麗 때(一三七七) 白雲和尚이 抄錄한 『佛祖直指心體要節』을 鑄字印施한 淸州牧外 興德寺址^⑮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寺址의 西廻廊址에서는 『大中三年』(八四九)銘기와가 출토되었고 이 외에도 다 새로서 新羅末에 흔히 쓰여진 紋樣이 나와 적어도 이곳이 新羅末 이전의 寺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前記의 『桂香之寺』銘은 羅末 때의 절 이름일 수도 있다^⑯ 한다.

○ 金堂址

보고서에 기술된 것을 종합하여 가람의 특징을 보면 金堂址는 寺址의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있고 東側과 南側의 基壇이 流失되었으나 北邊과 西邊이 비교적 잘 남아 있는 正面 五칸, 側面 三칸의 건물인데 柱間의 거리는 正面이 약 2·1m로 같고 側面은 前後 挾間이 2·1m, 中央間이 三·四m였다. 基壇은 地臺石과 面石, 그리고 甲石으로 쌓여졌던 것으로 보이며 地臺石과 面石의 일부가 남아있고 또 北邊中央에 폭 1·7m의 階段址가 남아있다. 특히 一/四圓孤의 계단 갖돌이 주위에서 발견되어 이것이 高麗時代의 특징을 가진 遺構임을 말하여 준다. 추정 基壇의 규모는 東西 五三尺, 南北 三九尺이며 基壇高는 三尺정도로 추정하고 있다.^⑰ 基壇 밖에는 또 한울의 石列이 놓여있어 마치 二重基壇^⑱을 형성한 것 같지만 그 성격은 확실치 않다.

○ 講堂址

金堂址 북쪽으로 좀 떨어져서 遺構가 남아 있는데 유실이 심하여 그 규모를 알 수 없다. 이 遺構에 대하여 正面 四칸과 側面 二칸으로 추정 발표된 바도 있으나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며 金堂址에 비해 너무 작은 감이 있다.

○ 西廻廊址

이 외에 확실하게 확인된 遺構는 西廻廊址인데 南北의 柱間이 一・二間이며 東西로 칸이 一間이다. 柱間의 거리는 약 3m의 폭을 유지했다 하며 礎石과 礎石 사이에 고막이 돌이 남아 있어 벽을 처리하였음이 밝혀졌지만 北端에서는 講堂址와 바로 접하지 않고 또 다른 小型 建物址를 隔하여 講堂址를 연결지은 듯하다. 廻廊址 南端은 역시 유실되었지만 基壇이 東側으로 꺾인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일단 끊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西廻廊址 서편에 담장址가 노출되었다.

○ 伽藍의 性格

이미 말하였듯이 伽藍의 반 이상이 유실되어 그 성격을 알 길이 없지만 現遺構를 근거로 伽藍의 크기를 살펴보면 南北軸線上에 주요 건물은 배치한 伽藍으로 南北이 90m, 東西가 50m 내외인 寺址임을 알 수 있다. 또 金堂址 남쪽에 中門址 밖으로 생각되는 곳인 돌을 쌓어 모은 구덩이에서 塔身片으로 보이는 材料를 찾아 이곳에 石塔이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一塔式 伽藍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일 二塔式이라면 廻廊內廊이 너무 좁아 두 탑을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 寺址에서 약 800m 떨어진 雲泉洞寺址에서 靑銅을 녹인 도가니 조각 二〇여 점을 발굴했는데 이곳이 興德寺의 암자로 추정되어 이곳에서 금속활자를 주조한 것으로 보인다.^⑩

또 이 雲泉洞寺址 발굴 결과 정면 五칸, 측면 二칸의 金堂址와 南廻廊址(長·九칸)와 東廻廊址(七칸)塔址一基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상으로 볼 때 이 伽藍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世界史的으로 볼 때에도 대단히 중요한 伽藍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그 반이 毀失되어 더 자세한 伽藍性格을 파악하지 못하고 遺構와 遺物을 안전하게 보존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四) 中原 彌勒里 寺址

◎ 位置 및 概觀

이 彌勒里 寺址는 忠淸北道 中原郡 上莪面 彌勒里 안말(內村)에 있는 절터인데 이에 대한 문헌기록이 없어 그沿革을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 있는 佛像, 三層石塔과 遺構 등으로 미루어 보아 高麗시대의 石窟寺院으로 알려졌다. 이 寺址는 小白山脈의 한 줄기인 해발 915m의 釜峯에서 북쪽으로 내려온 계곡에 하천을 중심으로 하여 그 左右에 자리잡고 있으며 地勢는 南高北底形인데 우리나라 寺院으로서는 보기 어려운 北向이다. 寺址 중앙에 남북으로 가로 질러 흐르고 있는 하천은 원래 서쪽에 더 치우쳐 흘렀던 것이 도중에 中央側으로 바뀌어 흐르게 된 것 같다. 하천의 東側 南高臺地에는 月岳山을 바라보고 선 石佛立像(보물 九六호)이 方形으로 짜여진 石室 안에 安置되어 있고 石佛立像 앞 한 단 낮은 곳에는 石燈이, 좀 더 내려온 위치에 五層石塔(보물 九五호)이 軸線上에 놓여 있어 北向한 一塔式 伽藍을 보인다. 寺址發掘調査는 一九七七년부터 一九八二년까지 三次에 걸쳐 行하여 졌다.

○ 石窟과 前室

이 발굴조사 결과 石室 앞에는 前後列로 五개씩의 礎石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고 그 流失된 礎石을 감안하여 正面五間, 側面一間을 이루고 있는데 石室의 규모는 東·西壁의 平面길이 10·75m이며 南壁은 9·8m로서 石室의 높이는 다같이 6m이다. 石室 中央에는 9·8m 높이의 커다란 石佛이 서있다. 方形의 基壇 위에 蓮花를彫出한 圓座를 놓고 그 위에 네 덩어리로 된 石佛을 올려 놓았는데 佛頭에는 板石形 八角寶蓋가 얹혀 있다. 石佛 주위로는 礎石이 배열되어 있어 이것이 前室과 연결되는 佛殿을 세웠던 흔적으로 볼 수 있고 또 石室上面外側에도 기둥을 받쳤던 것으로 보이는 長臺石이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殿을 복원한다면 正面五間, 側面六間을 계획한 건물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石室을 이룬 石壁은 長臺石을 뒤어서 쌓거나 立石처럼 세워 쌓기도 하여 여기에 龕室을 만들어서 佛像을 조각 安置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前室의 조사에서 「彌勒堂」「彌勒堂革」「金堂改蓋瓦」 등의 銘瓦가

출토되어 「彌勒堂」이라 부르는 金堂址임을 알 수 있다. 이들 前室 礎石의 主間은 正面 中央 三間은 一一·五曲尺—一三尺까지이고 東쪽 狹間이 九·八尺, 西쪽 狹間이 一一尺이다. 그리고 南北 一間은 九·八—一〇尺이다. 또 여기 配列된 礎石들 중에는 圓形 柱座를 갖고 고막이도 있는 前述한 萬福寺址 西金堂址의 것 과 비교되는 것이다.

主室과 前室 사이에는 분지방울이 있는데 이 분지방울은 三區로 나누어 그 사이사이에 높은 기둥돌을 놓았고, 中央 分지방울 上面의 양쪽 끝부분에는 二개씩의 孔穴을 뚫고 양쪽 挾間쪽 分지방울에서는 一개씩 孔穴을 뚫어 이것이 일종의 金剛冊과 같은 시설을 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윗쪽으로 높이가 五尺, 폭이 약 九·二尺인 石床이 놓였는데 床石의 邊에는 연일의 문양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本尊佛 앞에 놓이는 祭壇으로 생각된다.

○ 石燈 및 石塔

本尊石佛에서 북쪽으로 二五m 내려온 지점에 높이 三·七m의 石燈이 놓였는데 不整形 地臺石에 圓形의 覆蓮花를 陽刻한 下臺에 八角竿石을 세우고 그 위에 仰蓮 中臺石을 올리고 八角 火舍石과 相輪部를 올린 형태를 하고 있어 統一新羅時代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다.

또 五층석탑은 石燈의 북쪽 약 一六·五m 떨어져 세워졌는데 높이가 七·五m 이며 地臺石 위에 上層基壇을 올리고 그 위에 五층의 塔身과 屋蓋石을 올려 놓았다. 相輪部는 유실되었고 塔의 체감이 작아 古拙하다. 屋蓋石의 층받침이 五단으로 된 統一新羅系이다.

이 石塔 앞에도 바로 인접하여 四角石燈이 놓였는데 이것은 도중에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本殿基壇과 石燈區와는 지면이 한단 낮아지고 있고, 또 石燈과 石塔 사이도 石築段을 두어 石塔區가 一층 낮아지고 있으며 그 前面에 中門址로 보이는 곳까지는 경사지게 내려가서 本殿基壇과의 차이가 약 七·八m 나 된다. 또 石塔에서 북쪽으로 약 三五m 떨어진 부근에는 길이 六m 폭 四m의 거대한 龜趺가 있어 이곳에 碑를 세웠던 것으로 추정

된다.

○ 東側 建物址

寺址內 중심구역에 발굴조사한 결과 前室 東側에 南北으로 연결된 건물지가 노출되었는데 도리칸이 五間이고 보칸이 一칸이었다. 이 건물지는 西向을 하고 있었는데 최고 높이가 一·九m의 막돌허튼층쌓기基壇을 前面에 쌓았고 後面에는 폭 1·5m의 排水路를 두어 그 밖은 경사를 이루며 높아지고 있다. 礎石은 대부분 方形을 하였다.

이 건물지 아랫쪽에도 이 건물지의 前面 石築線과 列을 맞추어 石列을 둔 건물지를 볼 수 있었는데 이곳에는 礎石이 남아있지 않았고 그 규모는 東西 一一m, 南北 一七m로 추정된다 하였다.

○ 中門址 및 기타

龜趺 부근 남쪽에 도 건물지가 보고되었고, 龜趺 북쪽에는 中央間에 鋪石 통로를 둔 추정 中門址의 半分이 노출되었으나 서쪽으로는 河川에 의하여 유출되었다. 이 中門址는 礎石 배열로 보아 正面이 五間이고 側面이 二間인 제법 큰 中門이었음을 알 수 있다.

寺域內에는 이외에도 하천 서쪽 현재 世界寺 아랫쪽에서 여러棟의 건물지를 발굴 확인하였다.

또 추정 中門址 북쪽 약 一五m 거리에서 도파된 幢竿支柱材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위치가 약간 옮겨진 듯 하다. 이 支柱의 外面 上部側에는 六葉의 蓮花紋을 陽刻하였는데 지름이 약 四五cm의 크기였고, 또 內壁 中央에는 方溝가 깨져 竿을 세울 때 사용되었던 홈이다.

이렇게 하여 이 寺域의 범위는 東西가 약 六〇~七〇m, 南北이 약 一五〇m 되는 거대한 伽藍임을 알 수 있다. 이 境外에도 本尊佛에서 동쪽으로 약 五〇〇m 떨어져서 三層石塔이 있지만 이것이 寺院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 沿革의 考察

이 寺址의 유적조사를 통하여 본 沿革은 一차 발굴 때 출토된 銘文瓦片에 「大院寺」라는 이름과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明昌三年金堂改蓋□□□
大院寺主持大師□瓦立俵
□□□□□□四月現造

明昌三年大院寺住僧元明

瓦立僧元明儒造^④

여기서 明昌 三년은 高麗 明宗 三년(一一九二)으로 「金堂지붕을 다시 이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창건연대는 이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大院寺名은 高麗史에 기록으로 나오기는 하나 이곳을 같은 곳으로 믿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다. 高麗史에는 「以牛本爲忠州大院寺主」^④와 「牛本爲忠州大院寺主 加三重」^⑤이라는 말이 나온다.

또 전설에는 新羅의 麻衣太子가 亡國의 恨을 품고 金剛山으로 가던 길에 이곳에 들러 누이인 德周公主가 月岳山德周寺에 造成한 磨崖佛과 마주보게 石窟을 짓고 그곳에 石佛을 조성했다 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石窟과 石佛의 조성연대를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前記 실측보고에 의하면 石窟의 用尺을 曲尺과의 비례로 보아 ○·九七〇·九八尺의 唐尺을 사용했다 하여 이것이 羅末이나 高麗의 初期에 조성된 것으로 시사했으나 石佛에 대해서는 前掲 발굴보고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一世紀의 작품으로 추정했다. 또 출토된 瓦當의 문양도 가장 시대가 빠르다고 생각되는 八葉複瓣 蓮花紋이 高麗初의 것으로 추정되고 高麗初 以前의 것으로는 遺物이 별로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高麗 初期의 寺址로 추정되는 것이다.

(五) 佛日寺 概觀

◎沿革 및 寺址概觀

佛日寺는 高麗史 光宗 二年條에 「創大奉恩寺干城南爲太祖願堂 又創佛日寺干東郊 爲先妣劉氏願堂」이라 記錄되어 九五一年 先妣인 劉氏의 願堂으로 창건했음을 알 수 있다. 佛日寺址는 현재 北韓의 板門郡 山蹟里

寶鳳山南麓 佛日洞에 있다. 寺址는 비교적 넓은 臺地上에 山을 배후로 하여 東南으로 펼쳐진 평지가 있는데 이 골짜기를 따라 四km쯤 가면 華藏寺가 있고 남쪽에 작은 언덕을 넘어서면 高麗 文宗의 景陵이 있다. 여기서부터 開城까지는 西南쪽으로 一二km가 떨어져 있다. 이곳 계곡에 農水用 저수지를 만들기 위한 事前 조사로서 이 遺蹟을 발굴조사한 것이라^⑥ 한다.

寺址의 발굴조사는 一九五九년에 실시하였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寺址는 東·西로 긴 長方形의 高臺地上에 있어 臺地의 東·西邊은 산기슭에 접하여 있으며, 東西幅이 약 二三〇m, 南北이 中央區에서 一一五m이며 最北端 建物址까지는 一七五m이었다. 대체적인 伽藍의 성격은 東西방향으로 三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중 中央區劃의 伽藍이 가장 자임새 있는 中心廓을 이루며 이곳에 五層石塔이 놓여 있다.

○ 中央區伽藍

이 中央區域의 伽藍은 남쪽으로부터 中門과 石塔, 金堂 그리고 講堂址가 南北伽藍 軸線上에 놓이고 서쪽에는 大雄殿 中心에서 약 三二m 떨어져 單廊으로 된 廻廊址가 노출되었다. 이 廻廊址 南端은 中門址와 橫軸線上에 있는 또 하나의 中門址(五間×二間)와 연결되고 그 北端은 講堂址 부근에서 일단 끊기는데 講堂址와 연결되는 北廻廊址는 찾지 못하고 그 북쪽에 다른 區劃의 東·西廻廊을 갖는 건물지(五間×五間)가 노출되었다.

○ 西區伽藍

中央區에서 서쪽으로 西區의 伽藍이 中央區보다 낮게 놓였는데 여기서도 門址(三間×二間)와 四面廻廊, 그리고 中央에 三間×三間 규모의 正方形 建物址가 있으며 북쪽에 長方形 建物址가 廻廊과 연결되어 있다. 이 西區의 伽藍 남쪽 門址로부터 약 七五m 거리에 四〇m×三三m의 長方形으로 둘러싸인 돌담址가 있으며 그 中央部에 方形의 舍利壇이 있다. 담장지 南邊에 一間으로 된 門址가 있고 그 北邊에도 二개소에 門址가 마련되었다. 舍利壇은 外廓에 높이 三〇cm의 基壇을 마련하고 그 위에

本壇을 조성하였는데 한번이 九m, 높이는 八〇cm이며 中央으로 두툼하게 하여 여기에 또 한번 二m, 두께 四〇cm 크기의 板石을 놓았는데 이 板石 위에 직경 一m의 圓形으로 된 자리가 남아있어 이위에 石鐘形舍利塔을 세웠던 것 같다고 하였다. 이 方壇 四隅에는 四天王像을 배치하고 壇의 側壁에는 일정한 區劃을 이루어 飛天像을 조각하였다. 이 石鐘에는 龍이 조각되었다고 전해 내려온다.

○ 東區伽藍

中央區와 담장으로 분리된 것 같은데 그 北半部에서 건물지로 보이는 遺構가 여러개 나왔으나 毀失이 심하여 규모를 알 수 없다.

◎ 中央區內 건물지

以上이 보고서의 내용으로 伽藍의 性格인데 이 중 中央區의 伽藍에서 重要遺構를 살펴본다.

○ 中門址 및 廻廊址

中門址는 원래 正面 三間, 側面 二間이지만 左右의 안쪽으로 별도의 一間씩을 늘려 그 앞에는 길이 二七〇cm 幅 九〇cm의 큰 板石을 놓았으며 이 上面에는 六〇cm 간격으로 길이 三〇cm되는 方形과 長方形의 구멍을 뚫었는데 方形穴은 길이 三〇cm 幅 二〇cm로 되어 건물지 外側쪽에 있었고 長方形穴은 길이 四五cm 幅 二五cm으로서 內側쪽에 파여 있었다. 필자의 전해로서는 이것이 力士像을 세웠던 자리가 아닌가 한다. 또 中門址의 礎石은一邊이 一m 정도의 큰 것이었다고 한다.

西廻廊은 西門 中央에 연결되어 북으로 講堂址가 있는 곳까지 八〇m가 떨어져 있었다. 廻廊址의 礎石은 五·六개의 圓形礎石도 포함되었는데一邊이 八〇cm정도였다. 이 西廻廊址가 西門址 中央에서 複道와 같이 시작되는 것도 특이하지만 이에 대응되는 東廻廊이 없이 담장으로 막아 東區와 구분함도 특이하다.

○ 塔 부근 建物址

塔의 東·西에 있는 건물지는 中門址 左右에 內側에서 시작하여 북으로 떨어진 大雄殿址 基壇 앞까지 이어졌는데 東側의 것은 二개의 건물로

나뉘어져 北側의 것이 正面 六間, 側面 四間이고 그 南側에서는 側面이 三間으로 줄어졌다. 또 西편의 건물지는 도리칸이 一三칸 보칸이 三칸이다. 塔 앞에도 前記한 東·西 두 건물지를 연결시킨 듯한 行廊址가 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들을 僧房址로 추정하였다.

○ 大雄殿址

大雄殿址는 遺蹟의 중심부에 있어 그 앞에 있는 塔의 地面보다 약 二m 높게 있다. 礎石은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으나 교란되어 있으며 엮어진 것도 많은데 礎石의 크기는 中門址의 것과 같다. 基壇의 규모는 東西 二五m, 南北 一七m의 五間×四間으로 추정되었고 前面계단지는 幅 三·四六의 七단으로 높이는 二·一m이며 後面의 것은 幅 二·七m 七단으로 높이는 一·四m이다.

○ 講堂址

大雄殿址에서 一·五m 북쪽으로 떨어져 있다. 東西길이 약 三四m의 基壇을 조성했고 正面 七間, 側面 三間으로 추측되고 礎石이 많이 결실되었다. 講堂址의 中央 後側부분에는 화강석재로 東西 二·二五m, 南北 二·五m의 方形틀을 만들어 그 내부에는 전등을 깔았다. 講堂址와 大雄殿 사이에는 塼으로 된 鋪道가 놓였는데 그 幅이 三m였다. 講堂址의 礎石柱間은 四·二m라 한다.

○ 塔과 幢竿支柱

塔은 寺址의 中央部 中央伽藍에 있는데 門址와 大雄殿址·講堂址등과 함께 南北中心 軸線上 大雄殿(金堂)址와의 中心거리가 약 三〇m되는 지점에 놓였다. 이것은 一塔式 伽藍을 의미한다. 塔은 二重基壇위에 놓인 五層石塔으로서 落水面이 가파르고 高拙한 立面과 특박한 屋蓋石 등 高麗時代의 전형적인 石塔임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이 塔이 開城市內로 옮겨졌다 하며 一九六〇년 이 塔을 해체했을 때 二〇여개의 小塔이 一·二층 塔身內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石製와 金銅製·靑銅製등이고 또 小壺와 經文·絹布片 등 많은 유물이 나왔다 한다. 石塔의 높이는 총 七九四cm였다.

中央 伽藍의 中心軸을 따라 石塔과의 거리 약 一二〇m 남쪽에 幢竿 支柱가 놓였는데 그 형식은 統一新羅時代의 것을 계승한 일반적인 것이었으며 높이는 四四二cm였다.

이 寺址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와류와 陶磁器片·塼·鴟尾片이며 瓦當은 統一新羅의 蓮花紋을 이은 蓮花紋이다.

이곳의 石塔에서 사용한 尺度는 三五~三六cm로 풀이하여 高麗尺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分析·說明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高句麗 用尺을 高麗人들도 즐겨 사용했다고 해석된다.

◎가람의 성격

以上の 記述로서 이 寺址의 伽藍은 一塔式 伽藍인데 여기서도 興王寺 址나 萬福寺址와 같이 二~三區의 伽藍을 형성한다. 高麗시대와 一塔式 伽藍으로는 開國寺·文化寺가 있다. 그러나 興王寺는 二塔式 伽藍이다. 三國時代의 一塔式 伽藍은 塔과 金堂 주위에 廻廊을 둘러싼 대칭적인 폐쇄공간을 이루고 있는데 비하여 高麗시대와 一塔式은 이러한 規範의인 配置가 흐트러지기 시작하여 非對稱의인 伽藍을 보이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配置의 가람을 보인다.

(六) 檜岩寺址

◎位置

京畿道 楊州郡 檜泉面 檜岩里 四八번지에 있다. 寺址는 동쪽으로부터 북으로 뻗어있는 天寶산맥의 줄기가 휘어감아 背山을 이루는 곳에 南西北을 향하고 있다. 지세는 대체적으로 평평하나 寺址 南北 軸線에 따라 高低 차이가 있어 여러곳에 境段을 쌓아 境界를 만들었다. 이 寺址의 西北에 계곡 쪽으로 약 七〇〇m 떨어져 檜岩寺의 創建時와 重興期의 名僧인 指空·懶翁·無學大師의 浮屠와 碑 등이 있으며 이곳에 따로 寺院을 조성하여 현재의 檜岩寺를 이루었다.

◎沿革

檜岩寺가 언제 創建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東國輿地勝覽에는 「檜

岩寺在天寶山高麗時西域僧指空到此云山水之形宛同天竺阿蘭陀之寺」라고 하여 高麗 指空과의 관계를 뜻하고, 또 高麗史 卷一三三 列傳에도 「: 懶翁設文殊會于楊州檜岩寺」라는 구절이 있어 麗末 懶翁 때의 행사가 기록되었으며 恭讓王 三(一三九一)에 왕과 그 세자가 檜岩寺에 거행한 기록이 있어 麗末에 寺院이 융성하였음을 알 수 있고 朝鮮初에 규모를 크게 늘려 重創한 것이 王朝實錄에 나와 있다. 현재 寺址에 남아 있는 遺構로 보아 石築과 階段·礎石 등은 麗末~鮮初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그 대략적인 時代를 입증하여 준다.

◎寺域造成

寺域은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地形의 높낮이를 七段 정도의 石築으로 조성하여 各段地마다 建造物을 배치하고 있어 마치 開城의 高麗宮 址 滿月臺의 配置를 연상시키는 伽藍을 보인다. 寺域의 전체적인 범위는 南北長이 약 二三〇m, 가장 넓은 지역의 폭이 약 一六〇m 정도로서 면적은 약 八、〇〇〇坪이다. 제一段地에서 八段地까지의 高低差는 약 一四m인데 寺址의 東西面에는 높은 石築으로 산자락의 경사를 막았다.

○第一段地

南端區域이며 서편에 幢竿支柱 三柱가 서있고 東便에도 掛佛걸이 幢竿支柱와 같은 筒形의 것이 一組 있다. 이곳의 段築은 段 길이 약 一〇六·六m이고 높이는 一·三五m이다. 石築은 地臺石위에 長臺石 모양의 二段 石築위에 층이 높은 面石을 올려놓고 그 위에 甲石形 층이 낮은 長臺를 올려 놓았다. 南北軸을 맞추어 三間의 階段石이 있는데 圓弧形으로 된 隅石 四개가 잘 남아 있고 디딤돌은 東側間만이 잘 남아있으며 中央과 西쪽間은 많이 毀失되었다. 石築과 階段의 築造方式은 高幢末 또는 朝鮮시대 支柱의 특징을 보인다. 제단 전체의 폭은 九·一〇m 또一段地, 東側 中間部에는 寺址의 排水시설인 듯한 暗渠시설을 碎石으로 만든 것이 발견되었다.

○제二단지

특별한 遺構가 없이 中央軸線에 제단 御道幅과 같은 약 三·六m幅

의 천량이 있는데 현재 갖돌만이 남아있다. 그 南邊에는 역시 三間の 계단이 있는데 夾間과 御間을 합하여 一·二·五m이다. 계단도 소맷돌이 圓弧形이며 제 一계단의 것과 비슷하나 石材가 더 마모된 것 같았을 리 없고 그 위에 흙이 조금 높은 面石을 좀 들여 세우고 그 위에 밀면 모서리를 들여 접은 甲石을 올려놓았다. 석축의 이러한 특징을 역시 高麗末이나 朝鮮初期의 기법으로 추정된다.

○ 제삼단지

中央에 一間으로 된 階段과 그 위에 三間×二間の 中門址, 그리고 中門址 左右에 廻廊처럼 東西로 늘어선 여러 棟의 行閣形式 건물지, 그리고 그 內側에 非對稱적으로 배치된 大小의 건물지 등 一三개의 건물지가 배치되었다. 특히 平面으로 보아 東側에 놓인 큰 建物址群은 僧房址로서 추정된다. 각 建物址의 礎石은 圓形의 운두가 약간 높은(一〇cm 정도) 柱座를 갖는 加工礎石과 四角의 높은 礎石, 또 柱座를 특별히 刻하지 않은 평평한 上面을 가진 礎石 등, 高麗시대와 北朝의 특징을 보이는 柱座 礎石을 비롯하여 朝鮮시대 흙높은 四角礎石 등 많은 종류의 礎石이 있다. 南邊의 石築은 높이가 약 一·四m이고 쌓은 手法은 제 二단 석축과 비슷하다. 다만 中門址앞에서는 石築을 前面쪽으로 약 一·二m 돌출되게 쌓았고 中央에 놓인 一間の 계단은 內幅이 약 三·九m로서 隅石은 圓弧形보다도 포물선에 가깝게 힘차고 새로운 형식의 갖돌을 장식하였는데 이 소맷돌 밑에는 橫으로 四區를 두어 안상을 조각하였고 앞쪽에는 太極紋을 施文한 돌부형을 올려놓았다. 제 二단지에서 南北으로 놓은 천량은 제 三단지 위에서도 계속 북쪽으로 편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四단지

段地 앞 石築이 동쪽 六·八m까지 남아있고 더 나아가 自然割石으로 쌓았는데 그 위에 바로 건물의 礎石이 石築面을 맞추어 올려져 그 內側(北側)의 礎石列과 맞추어 東西로 建物址를 이루고 있다. 또 一間으로 된 계단의 서쪽에는 석축이 六·二m 西向하다가 남쪽으로 편은 段地와

만난다. 여기에서는 石築과 계단이 묻혀 있지만 쌓은 기법은 제 三단지의 것과 거의 같다. 또 段地 위에는 東쪽과 西쪽으로 멀리 떨어져 건물 群址가 있지만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도 中央의 천량을 놓았던 흔적이 있다.

○ 제 五단지

石築이 東으로 四·七m, 西로 六·二m만 남아있어 나머지는 流失된 것 같다. 中央階段의 서편에 약식의 계단지가 二개소 있음을 확인하였고 中央階段과 石築을 쌓는 기법은 역시 前述한 것과 大同小異한 것이다. 이 段地 서쪽에 南北으로 長邊을 둔 건물지 二棟이 나란히 놓여 있다. 中央의 천량지도 다음 六段址로 연결된다.

○ 제 六단지

月臺와 같은 石築을 쌓았는데 中央에 主階段 東西 양쪽에 약 九·七×九·九m의 石築은 北折하여 側面石築을 이루었다. 이 石築에서 뒤로 六·四m 가량 물려서 伽藍의 中心建物인 金堂址가 놓인다. 金堂址는 소위 普光明殿址로 전해지고 있는데 正面이 五間, 側面이 四間으로 柱間은 正面의 中央間이 八·五尺, 挾間이 八·二五尺, 또 양측 끝의 挾間이 一〇尺이다. 側面은 中央二間이 八尺이고 양 脇間이 五·二五尺이다. 礎石은 대체로 外陳 礎石은 圓形의 柱座를 하였고 內陳은 四각의 평평한 초석을 놓았다. 이 외에도 불규칙한 自然割石으로 윗면만 평평하게 다듬은 것도 있고 圓形 柱座와 함께 고맥이 한 것도 있다. 이 건물지 후면 양쪽에는 複道址가 각각 이어지는 듯 했지만 여기에 놓인 초석 등으로 미루어 보아 本堂보다 후대에 놓았던 것 같다.

○ 제 七단지

전체가 流砂土로 堆積되어 있어 노출된 건물지가 없었지만 中央 계단지 위에서 前列 三間만 남은 礎石이 있어 門址로 추정된다. 그 柱間거리 는 中央間이 一〇·五尺이고 側間이 一〇尺이라 한다.

○ 제 八단지

石築이 거의 보이지 않고 경사지로 臺地를 이룬 듯 한데 東쪽과 西쪽

에 小形의 건물지 各一棟이 놓여 있다. 그리고 동쪽 끝에서 한 단 더 높은 곳의 東北側에는 무명의 浮屠塔이 一基 안치되어 있는데 普雨塔이라고도 전해온다.

◎伽藍의 性格

結論的으로 檜岩寺는 高麗末 指空和尚에 의해 創建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麗末 鮮初에 懶翁禪師가 重創하여 盛行되었다 하나 그 이전부터 前身의 寺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朝鮮 明宗朝 普雨禪師가 실각함으로써 寺勢가 기울기 시작하여 一九세기에 와서는 사찰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한창 번영했던 麗末에는 二六二間의 伽藍建物이 있어 당시의 유수한 大刹 중 하나였음이 牧隱集에 기록이 보인다. 寺址는 南向하여 背後의 天寶山을 背山으로 東西左右에 능선이 내려뻗어 寺域을 감싸고 있으며 寺域을 이루기 위하여 東西 양쪽에 石築을 만들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낮아지는 地形을 八段의 段築으로 臺地를 이루어 각 단층마다 건물을 배치하고 南北 中心軸을 따라 中央 御道와 계단을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찰은 마치 高麗시대의 宮址인 滿月臺의 배치를 연상시키는 段築配置를 하고 있다. 一九六五년에 당시 中央國立博物館에 의하여 발굴조사되었고 一九八四년에 楊州郡에서 새한建築文化研究所에 용역을 주어 실측·조사한 바 있으나 전체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伽藍은 論할 수 없지만 제 一단지와 제 二단지는 寺刹에 접근하는 外部空間을 이루고 제 三단지부터는 內部 中心廊의 기능은 이루어 中門인 金剛門과 四天王門 등이 배치되었을 것이며 또 前面部에는 行閣形의 東西 長方形 건물들 들어 內部空間을 遮蔽하였고 平地 東西 양쪽에 金堂이 아닌 부수적인 殿과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제 五단지부터 八단지까지는 金堂·浮屠塔, 기타의 중요건물을 배치하여 이 사찰에서 가장 神聖視한 대상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塔址는 찾지 못했지만 만일 塔이 있었다면 이 區域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寺址 伽藍의 특성은 左右대칭의 規範의인 사람이 아니라 자연지세를 이용한 高麗時에 흥행했던 風水說에 조화되는 가람이었다고 본다.

(七) 居頓寺址

◎位置와 沿革

江原道 原城郡 富論面 鼎山里 玄溪山下담안마을, 原州로부터 서남쪽으로 약 四〇km 떨어진 山間盆地에 자리잡은 平地寺院이다. 이 寺址와 이웃한 南漢江邊에 法泉寺나 興法寺·高達寺 등의 여러 寺院들이 陸路보다는 水路를 통하는 것이 편리한 위치에 정해졌고 그러므로 옛부터 승려들이 서로 水路로 왕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변을 따라 上流로 올라가면 靑龍寺址, 中原 內洞寺址, 院洞寺址, 塔坪里寺址, 金生寺址, 淨土寺址 등 新羅末로부터 高麗時代 寺址들이 江岸이나 그 근처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열되고 있다. ⑤

특히 居頓寺址와 法泉寺가 있는 富論面 일대는 오랫동안 驪興에 속하여 高麗 때에는 忠州 중심의 中原지방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

居頓寺의 沿革을 밝힐만한 기록은 별로 없다. 그러나 勝妙塔碑의 기록으로 보면 圓空國師 智宗이 그의 末年을 이절에서 지내다가 入寂할 정도로 高麗 때 중요한 것이다. ⑥ 또 東國輿地勝覽에는 居頓寺가 玄溪山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⑦ 閔慶 鳳岩寺 智證大師 寂照塔碑에 居頓寺에 대한 기록이 나와서 新羅末의 僧과 관계를 말해준다. ⑧

또 居頓寺址에 있는 遺構, 遺物들로 보아 이 寺址는 新羅末로부터 高麗를 거쳐 朝鮮 初期까지 존속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데 金堂址의 基壇과 礎石, 또 圓空國師 勝妙塔(현재 景福宮 안에 있음)과 그 碑石 등을 볼 때 高麗 때에 伽藍이 가장 盛行하였던 것으로 믿어진다.

◎寺址의 配置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河川 北岸 中心部 전면에는 大石築段을 쌓아 埜地를 조성하고 伽藍 中央통로의 위치에는 門址가 있고 이 門址 左右로 廻廊을 연결하여 金堂址 주위로 돌린 듯 하며 前面 石築에서 북쪽 二四m 안쪽으로 三層石塔이 놓이고 이 石塔 中心에서 一三·五m 떨어진 金堂址의 南邊 基壇이 놓이고 또 이 金堂址 北邊에서 一三·五m 떨어진

어저 講堂址가 놓인 石築段이 동서로 뻗었다. 石築은 自然石으로 쌓았는데 높이가 약 2m 정도이다. 石築을 쌓은 방법은 大形의 自然石과 잔돌을 섞어 面바르게 쌓은 것이 榮州 浮石寺의 大石段과 비교된다. 또 金堂址로부터 약 1.30m 떨어져 背山 기슭에 圓空國師 勝妙塔이 있었던 浮屠殿址가 있고 東쪽으로 1.00여 m 떨어져서 勝妙塔碑가 있다.

현재 남아있는 建物址로는 中門址의 基壇石으로 보이는 石材 2.3개 및 南西廻廊址의 基段石列 일부와 金堂址, 그리고 三층石塔, 浮屠殿址 등이고 講堂址와 기타 建物址는 埋沒 또는 遺失되었다. 寺址의 伽藍은 南北軸을 따라서 中門과 塔·金堂·講堂을 配列한 一塔式伽藍을 보이고 있다.

石塔도 二重基壇 위에 三층으로 石塔을 세운 전형적인 統一新羅시대 의 石塔인데 그 밑에 一邊이 약 7.4m, 높이가 약 9.0cm 되는 石築方壇 위에 올려 놓은 것이 특이하고 方壇의 築造방법이 밑단은 흙이 낮은 長臺石 二단을 쌓고 그 위에 층 높은 面石을 놓아 高麗初期의 石築技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후시 高麗 때에 원래의 石塔을 移轉하여 올려 놓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 方壇의 南側 中央에는 폭 1.03m 되는 계단이 놓였는데 東側 隅石이 남아 있었고 石階는 三단만 남아 있다.

○ 金堂址

石塔 북쪽에 있는 金堂址는 그 石築基壇과 礎石, 그리고 佛座臺가 놓여 있었다. 礎石으로 보아 正面 五間, 側面 三間으로 內外陣의 기둥을 配列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礎石에 새겨진 柱座와 고백이 形으로 보아 內陣柱間을 三區로 나누어 구획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고 中央間에는 佛像을 보관하였다. 柱間의 거리는 正面 中央間이 5.80m, 兩挾間이 5.43~5.46m, 兩隅柱間이 3.73~3.78m, 또 側面 中央間이 5.76~5.81m, 兩挾間이 3.66~3.72m이다.

實例보고서에서는 그 用尺을 中央間 1.9尺, 兩挾間 1.8尺, 兩隅柱間을 1.2尺으로 추정하여 曲尺과의 환산비를 0.977~1.038로

서 唐尺에 가까운 尺度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실제 환산되는 수치는 이보다 더 큰 曲尺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礎石은 1.0m 내외의 方形石材에 圓形柱座를 새긴 것인데 柱座의 2면은 돌딩을 하여 統一新羅形式의 돌딩에다 下部에 一단을 두었음(M形)이 발견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또 柱座의 上下도 5~6cm로서 統一新羅時代의 것보다 비교적 높다. 이러한 柱座는 彌勒堂址의 것과 거의 같았다.

基壇은 밑에 地臺石을 놓고 그 위에 쇠시리를 한 長臺石을 놓고 또 面石을 놓아 다시 밑부분을 쇠시리한 甲石을 놓아서 地面에서 1.4m의 높이로 쌓았다. 基壇의 규모는 正面이 약 3.0m, 側面이 약 1.9.6m이다. 基壇 前後 中央에는 階段址가 있는데 幅은 약 2m이고 前面에는 六段의 階段石만 남아있고 계단隅石은 流失되었다. 後面의 계단은 隅石까지 남아 있는데 隅石은 一개 石材로 되어 △形을 이루므로 統一新羅時代의 전통을 이은 것 같았다.

前記한 佛座臺가 內陳列 後側 中央部에 놓였는데 손상이 심하여 확실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地臺石 외에 三段의 石材를 사용한 臺座로서 높이가 약 2m, 직경이 2m 정도인 大形의 臺座이다. 또 前面 內陳西側에도 훼손이 심한 큰 臺座石이 놓였는데 그 위치가 옮겨진 것 같다.

○ 圓空國師勝妙塔 및 그 碑

圓空國師勝妙塔은 현재 서울 景福宮內에 옮겨져 있는데 八角浮屠形을 이루고 있고 「圓空國師勝妙之塔」이란 塔名이 塔身에 새겨져 있다. 碑文에 의하면 高麗顯宗 九年(1018)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塔은 현재 六枚石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단부를 이룬 下臺와 中臺 및 上臺가 중첩되고 塔身部 屋蓋部 그리고 相輪部의 一部인 寶蓋石 一石이 頂上에 올려져 있다. 八角塔身에는 龕室門을 나타내는 出入門扉가 전후면에 그려져 있고 兩側面에는 光窓이 그리고 나머지 四面에 四天王像이 彫飾되어 있다. 木造建物の 지붕을 표현한 八角屋蓋石과 塔身 그리고 基壇部

의八部衆像등 화려한 조각등 고려시대 前期의 佛教美術相을 잘 보여 준다.

圓空國師勝妙塔碑는 현재 寺址의 東쪽 좀 떨어진 곳에 있는데 대리석으로 된 碑身 밑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놓인 龜趺가 있고 등에는 龜甲文안에 卍字가 새겨져 있으며 지붕의 귀바구니에는 부채살과 같은 모양으로 힘찬 形眼과 調和된다. 碑身 위에는 螭首가 얹혀있는데 비교적 네모 반듯한 石材에 四方에 이빨을 드러낸 龍을 대는 龍을 조각하고 正面中央에는 額方을 두었으나 아무 文字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 伽藍의 性格

이상의 기술로 이 寺址의 伽藍特性을 살펴보면 가람 前面南邊에 높은 石築壇을 이루어 寺域을 造成하고 그 石築앞에는 河川이 東에서 西쪽으로 흐르고 寺址의 中心部에는 南北 中心軸線上에 中門과 塔, 그리고 金堂址가 南에서부터 놓이며 그 주위에 회랑지를 둘러고 北쪽에는 石築段으로 한 단 높여 講堂을 두어 一塔式가람임을 알 수 있다. 또 北쪽 山기슭에 浮屠塔殿을 두었다.

특히 이 가람에서 講堂을 회랑 밖에 두었음은 日本의 法隆寺와 같은 古式의 가람개념을 導入한 것 같다.

結論

高麗時代의 佛教는 太祖의 지극한 崇佛政策으로 十訓要를 제정할 정도로 많은 隆盛을 이루었으며, 특히 大覺國師義天은 麗初 佛教界에 天台宗 새로운 氣風을 불려 일켜 敎禪의 合一을 꾀하고 天台宗을 開宗하여 五敎 九山에서 五敎兩宗으로 敎權을 쥐게 됐다.

한편 고려의 불교는 道說에 크게 영향받아 風水圖識思想에 부합되는 位置와 伽藍으로 寺院의 造成을 制限하려 하였음이 역시 十訓要에 나타나고 있어 당시의 가람조성이 風水地理思想에 重要な 比重을 차지하였음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建國初부터 많은 貴族들의 出家入佛은 佛教界의 貴族化와 지식의 승격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지만 차츰 광범위한 民間人의 佛家參與와 修道로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아면인 要素 즉 巫俗, 陰陽기타 雜術들이 加和되어 雜多한 의식과 가람으로 變質되는 경향과 또 個人을 위한 祈福佛敎의 경향을 낳게하여 佛敎道場의 秩序를 문란케 하였다. 따라서 國家가 佛敎를 옹호하는 기회에 힘입어 寺院의 納田, 納奴, 免稅, 免役을 온갖 혜택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社會經濟를 左右하는 富裕한 기관으로 행세하여 이에 중사하는 자들도 修道보다는 金慾에 戀戀하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하여 後期에 와서는 妙淸이나 辛旽같은 자가 政權에까지 야심을 갖고 사회를 어지럽혀 禪僧의 체면을 실추시키기도 하고 佛道場의 부패가 심하였다.

이러한 불교계의 실추는 마침내 識者인 儒學者들의 비난을 받게 되고 排佛운동이 일어나면서 儒佛이 서로 반목 갈등하게 된 것이며 후에 朝鮮王朝가 들어서면서 佛敎는 抑制當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배경의 맥락으로서 高麗의 伽藍은 다음과 같은 特徵을 나타낸다.

첫째, 伽藍立地和 환경에 있어 地勢 또는 山勢에 調和되도록 配置하고 있다. 이는 風水圖識思想을 존중하여 가람을 조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一塔式伽藍의 造成이 많다.

이것은 일론보면 百濟의 典型的인 가람으로 南北軸線上에 中門과 塔, 金堂 講堂을 配列한 形式과 같으나 이와는 다음과 같은 다른 점이 있다. ① 一塔式의 單廊으로 된 것을 前述한 興德寺址 以外에는 드물고 萬福寺址가 佛日寺址와 같이 複合的인 伽藍이 加味된다. 이것은 佛敎伽藍에 民間傳統信仰인 사아면인 要素들이 加해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② 廻廊이 百濟의 경우처럼 中門과 講堂을 連하여 左右對稱의 形式으로 完全히 둘러치는 예가 드물고 반부사지와 같이 南廻廊만 中門兩側에 든다던가 佛日寺址와 같이 中央區와 西區사이에만 두는 그런 自由로운 配置이다.

이것 역시 風水說과 關聯하여 配置된 것이 아닌가 한다. ③ 一塔式이면 서 益山彌勒寺址가람과 같이 中院과 東, 西院을 두는例가 佛日寺址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二塔式인 興王寺址에서도 볼 수 있어 前記 미륵사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二塔式 伽藍造成도 있다.

이 二塔式의 가람은 統一新羅 가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믿어지는 데 前述한 興王寺址에서 볼 수 있고 또 좀 다르기는 하지만 만복사지의 現在 五층석탑이 後代에 옮겨온 것이라면 여기서도 木塔과 石塔을 같이 놓은 二塔式이라 하겠다. 이에 對하여는 더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興王寺의 兩塔은 八角의 木塔이었다는데서 特殊形이라 할 수 있다. 넷째, 前述한 檜岩寺址와 같이 寺域을 地形에 맞추어 段築을 여러 곳에 두어 가람을 形成하는 例로서 이 경우 檜岩寺址는 塔址를 發見할 수 없거 境內에 浮屠만 있던 無塔 願堂伽藍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南原의 萬福寺와 같이 西殿 東塔式과 一塔式配置가 混用된 것도 開城 寅福寺와 같이 東殿 西塔式의 가람을 갖는 것도 多樣한 가람을 보인다.

여섯째, 中原 彌勒寺址와 같이 石窟寺院의 造成인데 이 形式 역시 高麗代에 사용된 가람形式의 하나라는 것을 聖居山 晚日寺²⁰ 등에서 알 수 있다. 이 石窟寺院을 石窟앞에 前室을 두어 이것이 金堂의 機能을 하는 것이며 경우 石窟庵과 같이 石窟內에 本尊佛과 其他의 佛像을 奉安하는 것이다.

以外에도 高麗의 가람에는 이미 말한 샤아면적인 요소로서 密敎的 影響을 받아 金堂이 大雄殿, 能仁寶殿 또는 羅漢寶殿 등으로 改稱되고 七星閣, 山神閣, 應眞殿, 靈山殿 등 잡다한 요소의 건물들이 생기게 된다.

① 高麗史 太祖二十六年夏四月, 御內殿, 召大臣朴述希, 親授訓要 其一曰「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 故創禪敎寺院, 差遣住持焚修使各治其業, 後世

② 其二曰, 諸寺院, 皆道誡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誡云吾所占定外, 妄加創造, 則損薄地德, 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候后妃朝臣, 各稱願堂, 或增創造則大

可憂也, 新羅之末鏡造浮屠衰損地德, 以底於亡可不戒哉, 太祖世家。

③ 高麗史 卷九十二 崔凝傳。

④ 李丙燾 韓國史 中世篇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⑤ 閔丙河 韓國史大系 4 高麗 三珍社, 1973.

⑥ 東文選(六十四) 清平山 文珠院記。

⑦ 前揭 李丙燾 韓國史。

⑧ 前揭書。

⑨ 前揭 閔丙河 韓國史大系 4 高麗。

⑩ 戒律宗, 法相宗, 涅槃宗, 法性宗, 華嚴宗。

⑪ 迦知山, 實相山, 桐裡山, 鳳林山, 聖住山, 師子山, 義陽山, 須彌山, 閣崛山

⑫ 前揭 李丙燾 韓國史, p. 280.

⑬ 그 標石에 아래와 같이 새겨짐. 「通度寺孫仍川國長生一坐段寺, 所報尙書戶

部乙丑五月日牒前, 判只如改立令是於爲子以立, 大安元年乙丑十二月日記」李

丙燾 前揭書 再引用。

⑭ 孫晉泰 「長生考」(市村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李丙燾 前揭 韓國史 再引用

⑮ 安啓賢 白性郁 박사 頌壽記念 佛敎學論文集 1950. 東國大學校, p. 519.

⑯ 李丙壽 新修 韓國史大觀 普文閣 1972, p. 287

⑰ 全羅北道 全北大學校博物館 萬福寺發掘調查報告書 1986. 再引用。

⑱ 新增 東國輿地勝覽 卷三十九 南原。

⑲ 全榮來 「萬福寺址 石人支柱」考古美術 6, 1965.

⑳ 奏弘燮 「南原 萬福寺址 石塔의 調査」白山學報 八號 1970.

㉑ 東國輿地勝覽 卷三十九 「萬福寺在麒麟山 東有五層殿 西有二層殿 殿內有銅佛

長三十五尺 高麗文宗時所創 姜希孟詩松桂陰濃護郡家寶坊 鍾聲月中多眼明忽

覺煙蘿經懶向人間問綺羅。

㉒ 南原有梁生者早喪父母 未有妻室 獨居萬福寺之東房……明日郎三月二十四日

也 州俗燃燈於 萬福寺祈福 士女駢集 各呈其志 日晚梵罷人稀。

㉓ 梁慶過詩 千年香火墮妖氣 羅代經營一痕痕 珠殿已歸空地棄 金仙纔得半身存

紙錢事絕人誰到 鍾梵聲消目自昏 惟有世間長久物 石矯西下水潺湲……曠野饒

悲風蕭條歲將暮 僧亡古寺存 日落無鍾鼓(以上 龍城志는 鄭求福 南原 萬福寺

址第一次發掘略報 古文化 제 18 권 1980. 에서 再引用한 것이다.)

㉔ 世傳 道誡國師所建丁酉倭亂 蕩盡無餘 只有一間以崔一殿 中有石佛 大雄殿

藥師殿, 丈六殿, 靈山殿, 普應殿, 千佛殿, 羅漢殿, 寔府殿, 等屋 但有遺址

府使鄭東高 戊午年間 重創二房 以土着僧 居守成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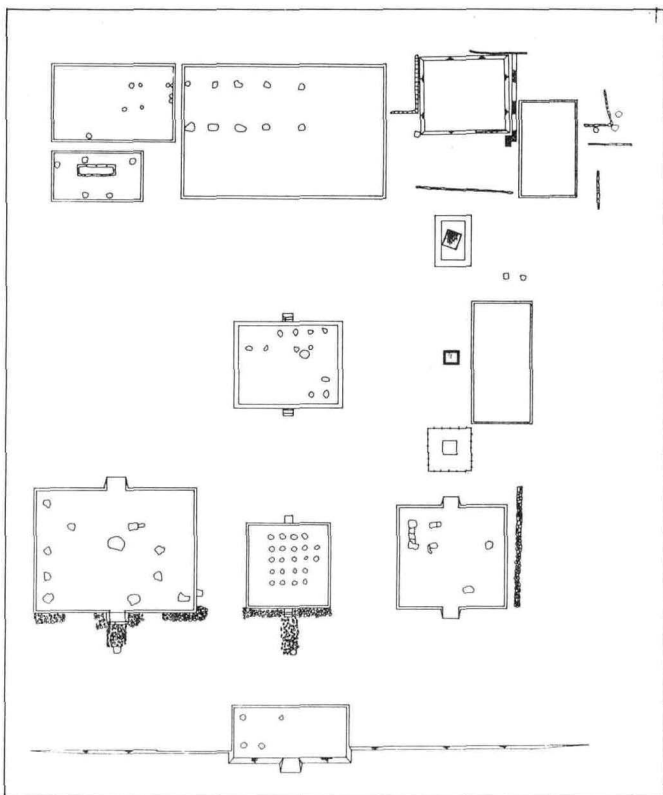
㉕ 諺傳 道誡以唐一行說 爲鎮壓此府而地理 設此寺 造佛建塔 丑川設鐵牛 鶴回峯

設鐵環立塔於龍潭與虎山 建寺於禪院及 波根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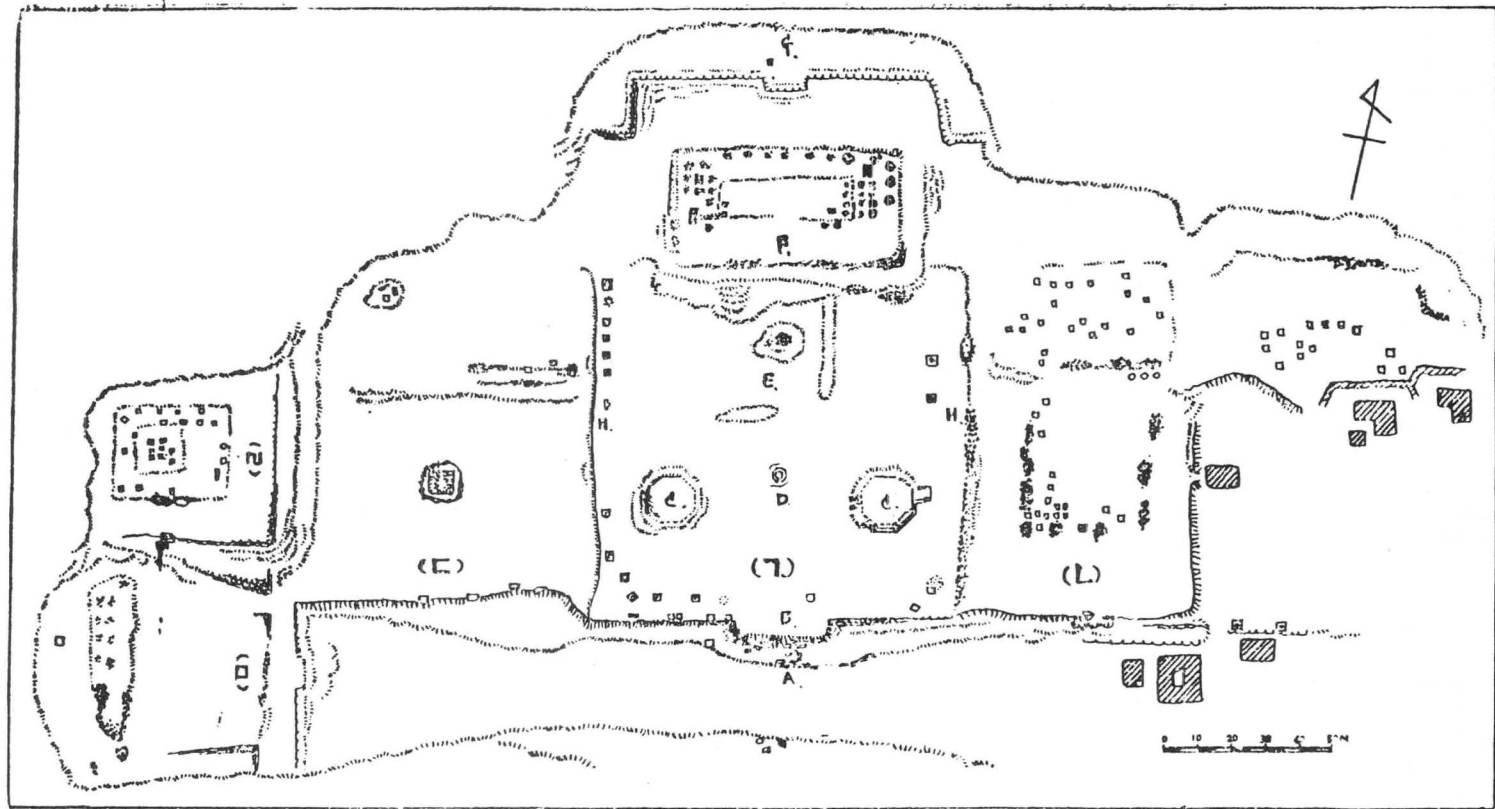
㉖ 萬福寺 發掘調查報告書 全羅北道 全北大學校 博物館 1986.

㉗ 高麗史 卷八 文宗二十一年條……庚申興王寺成凡二千八百間十二年而功畢

-」
- ②7 黃壽永 高麗興王寺址의 調査 白性郁 博士 頌壽記念佛敎學論文集 一九五九 東國大學校 p.1113, 1114.
- ②8 黃壽永 前掲書.
- ②9 東國通鑑 卷十七 高麗記 文宗三十四年條 「……夏六月興王寺金塔外護石塔成 赦」라 함.
- 高麗史 卷九 文宗三十四年(1080) 六月條의 「興王寺石塔成赦」라 하고 七月 條에 「是月興王寺金塔成以銀爲表銀四百二十七斤金一百四十四斤」
- ③0 高麗史 卷十 宣宗 四年三月己未條 「王如興王寺慶成大藏殿」.
- ③1 高麗史 卷八 文宗二十四年二月條 「幸興王寺以新妓氏殿設慶成大會經宿而還」
- ③2 忠清北道 清州 興德寺址 發掘調査報告書 清州大學 博物館 1986. 7. 30.
- ③3 車勇杰 清州 雲泉洞 古碑調査記 湖西文化研究 3, 1983.
- ③4 이 동복 清州 雲泉洞 寺址發掘調査報告書 清州大學校博物館 1985.
- ③5 오기익 甲寅五月日 西原府興德寺 禁口壹坐改造入重參拾貳斤印」이라 기록됨.
- ③6 「皇統十年庚午四月 日興德寺依止重大師領仁往生淨土之愿 佛鉢一盒具 雲 口入重二斤二兩印」이라 쓰여진.
- ③7 「佛祖直指心體要節」卷下의 「宣光七年丁巳七月 日清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라 함.
- ③8 前掲 發掘報告書 1986. p.89.
- ③9 金正基 興德寺址 伽藍의 對한 考察 一九八六年 學術會議 發表
- ④0 前掲書
- ④1 이 동복 前掲書
- ④2 實測值 中原郡 發行 「中原郡彌勒里石窟 實測調査報告書」(1972)의 의거 記함.
- ④3 中原郡 彌勒里 寺址 二次發掘報告書 1979, p.49.
- ④4 高麗史 卷一二九 列傳 卷四二 崔沆條
- ④5 高麗史 卷二三 高宗 三年 一〇月二日條
- ④6 高麗 佛日寺의 調査研究(水谷) 朝鮮學報 第一一三輯
- ④7 高麗史 卷四十六 恭讓王三年條 世家
- ④8 原城郡 居順寺址 石物實測 又 地表調査報告書 1986, p.3.
- ④9 朝鮮金石總覽 原州 居順寺 圓空國師勝妙塔碑文 參照
- ⑤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之四十六 原州牧 佛宇
- ⑤1 朝鮮金石總覽 聞慶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 ⑤2 李殷昌：聖居山 晚日寺 調査報告, 古文化 第五・六合輯 韓國大學博物館協 會 1969.



〔圖 1〕 萬福寺址 伽藍圖 整備工事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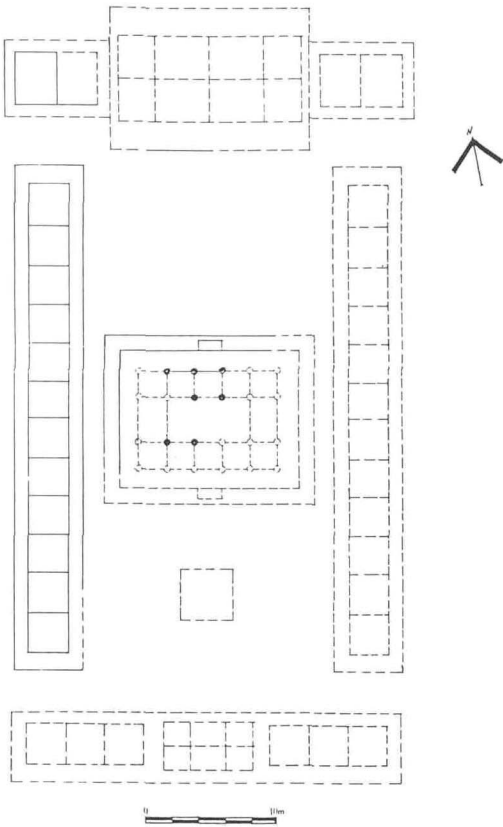


〈實測圖 第1〉興王寺址 伽藍配置

(ㄱ) 中央伽藍址 (A. 階段址 B. 門址 C. 八角基壇址 D. 石燈址 E. 金堂址 F. 講堂址
G. 北端建物址 H. 廻廊址 (ㄴ) 東伽藍址 (ㄷ) 西伽藍址 (ㄹ) 西高臺建物址
(ㄱ) 西南建物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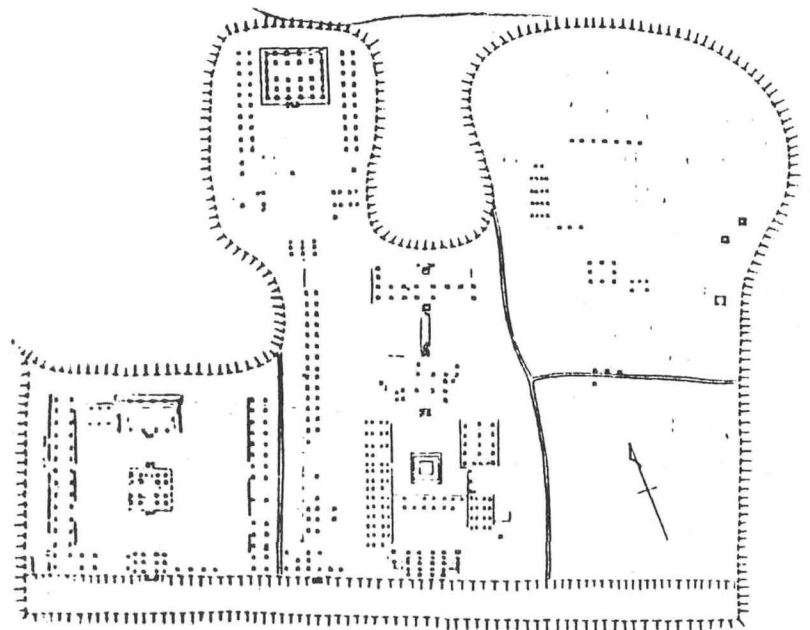
黃壽永：高麗興王寺址 調査에서 傳載 (白性郁 博士 頌壽記念 佛教學 論文集)

〈圖2〉興王寺址 伽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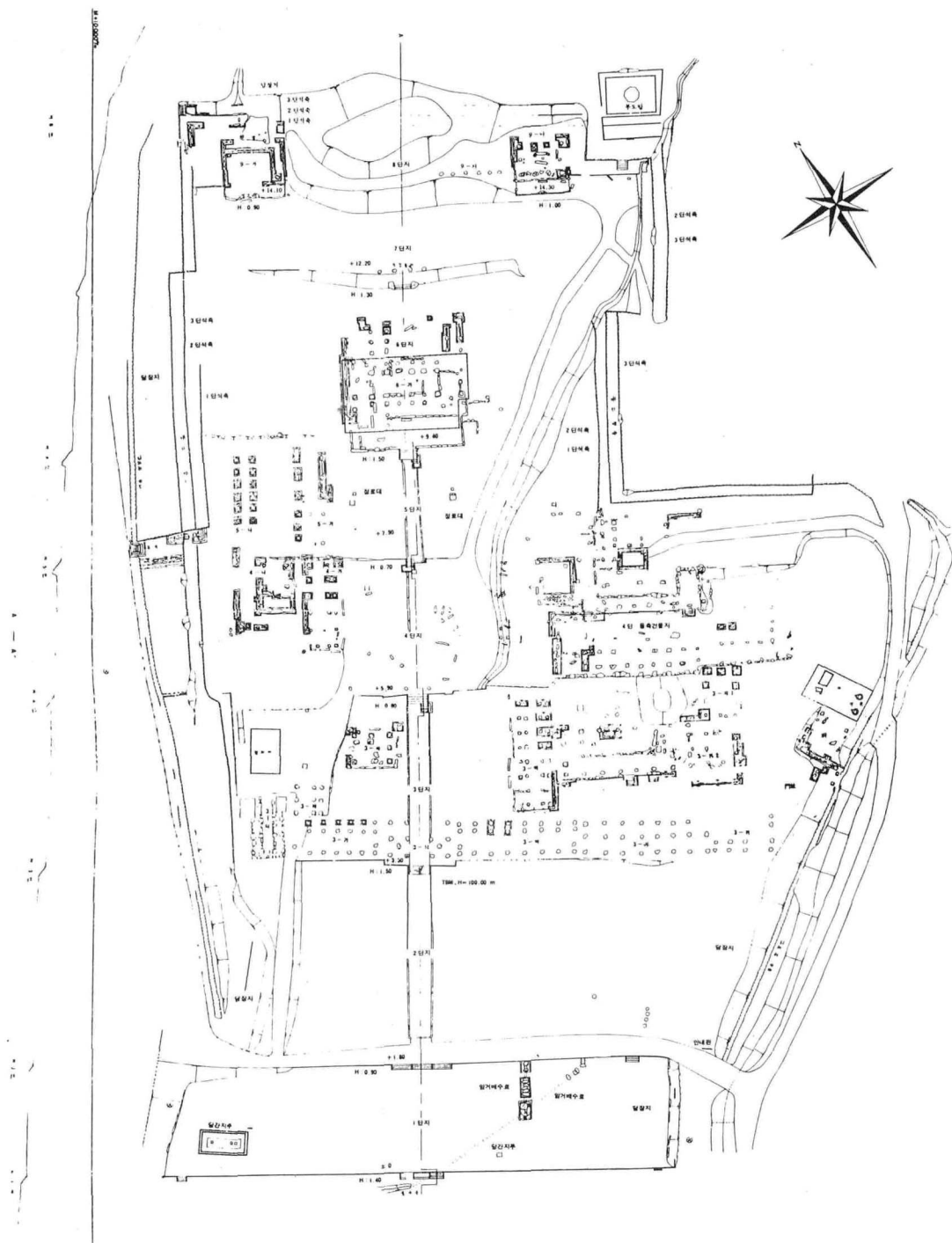
'86. 清州 興德寺址學術會議 報告書에서 傳載

〈圖 3〉 興德寺推定伽藍配置圖



〈圖 4〉 佛日寺址伽藍圖

水谷昌義：高麗 佛日寺9調査研究
朝鮮學報(第11輯)에서 傳載



('85. 楊州郡 實測 調査報告書)에서 傳載

〈圖 5〉 檜岩寺址 伽藍圖

